● 부산경상대학교 핵심역량(소통협업) 교양교재 ●

소통의끈

**오가현** 지음



## 차례

## 학습 1 사고하기 • 5

- 1-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
  - 01. 사고, 언어 그리고 의사소통 7
  - 02. 말과 글 9
  - 03.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 14
- 1-2. 사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 01. 사실적 사고란? 18
  - 02. 비판적 사고 23
- 1-3. 창의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
  - 01. 창의적 사고 33
  - 02. 인문학적 사고 46

## 학습 2 글쓰기 • 56

- 2-1. 바른 글쓰기
  - 01. 어휘 선택 56
  - 02. 바른 문장 쓰기 67
- 2-2. 전략적 글쓰기
  - 01. 주제 선정 80
  - 02. 내용 구상 82
  - 03. 자료 수집과 정리 85
  - 04. 개요 작성 89
- 2-3.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
  - 01. 글 잘 쓰는 기본 원칙 92
  - 02. 일상에서 재미있게 문장력을 높이는 글쓰기 훈련 방법 96
  - 03. 에세이 쓰기 101

## 학습 3 말하기 · 듣기 • 111

3-1. 대화

## 학습 4 토론하기 • 121

- 4-1. 토론 방법의 이해
  - 01.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 122
  - 02.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의 실제-토론하기 123
- 4-2. 토론의 실제
- 4-3. 독서 토론의 실제
  - 01. 우리는 왜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할까? 139
  - 02. 독서토론의 목표 140
  - 03. 독서토론의 방법 141

•참고문헌 • 150

+

학습 1.

# 사고하기



## 1-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

#### 학습목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사고와 표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자신의 생각을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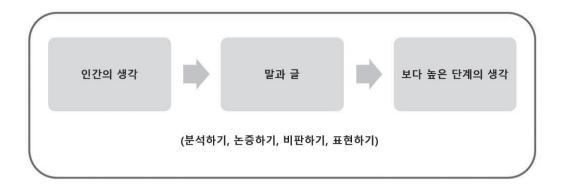
#### [하위역량]

### 의사소통 능력/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

## 01. 사고, 언어 그리고 의사소통

'생각하는 동물[Homo sapiens]', '생각하는 갈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 생각, 생각, 생각 좀 하고 살아'에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인간 혹은 자신이다. 이처럼 인간 혹은 자신의 특징을 가장 잘 규정짓는 말은 사고[사유, 생각]이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본능적인 몸동작 표정 등으로 단순한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특히 언어 중에서도 글[문자]은 복잡한 의미를 가졌으며 세계[존재]를 표현한다.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M. Heidegger)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며 동시에 인간 존재의 거처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말이나 글로 표현된 것을 비판할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는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사고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기'로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쓰기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를 통해 타인과 생각을 교환한다. 그



래서 생각[사고]과 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인간은 사회라는 구성체를 만들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구성원과 조회를 이루고자노력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homo loquens) 등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인간의 생각[사고]과 언어는 아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가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생각]란 생각 '사(思)'자와 생각 '고(考)'자로 이루어진 합성어로서, 이러한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언어이다. 언어란 말씀 '언(言)'자와 말씀 '어(語)' 자의 합성어로서 이른바 말과 글을 의미한다. 결국 인간의 생각을 언어로 드러낸 것이 말과 글이다 그래서 말한다는 것과 글쓴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언어와 생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과 글을 조리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논리적이야 한다. 생각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것을 표현한 언어 말과 글도 논리적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위해서 또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대화나토론은 물론 남의 글을 읽고 그 주장에 동조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주장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논리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표현된 말과 글이 정서와 감정을 표현할 경우 인간의 언어 말과 글이 반드시 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낙동강에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와! 아름답다"고 할 때 이것은 말하는 나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또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애들아, 밥 먹어"라고 할 때와 같이 특정한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도 있고 아버지가 퇴근하여 돌아와 아이들에게 "애들아! 아빠다. 문 열어"라고 할 때와 같이 '명령'하는 언어적 표현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좁은 의미에서의 언어적 표현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참 거짓이 분명한 명제를 포함한 언어이다. 즉 단순

히 진술된 문장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 담겨 있고 그 주장이 참이거나 거짓인 명제로서 언어의 다양한 기능들 중에서도 어떤 주장의 표현과 논증을 구체적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언어의 표현과 그 표현된 것을 논증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표현된 주장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는지 그 주장이 올바르게 논증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된 주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다.

### 02. 말과 글

언어는 말과 글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 가장 효과 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느낌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 해서는 언어가 전달하는 의미와 사용되는 맥락 그리고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 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언어는 한 개인의 역사와 경험을 공동체의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이러한 지식을 계승하고 축척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언어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언어를 유창하고 풍 부하게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야 한다. 그 중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문어로 의 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은 말에 비해 언어를 정제하고 수정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격식 있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학문을 하거나 전문적인 업무 를 수행할 때에도 글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한 번 발화되면 사라져 버리는 말과 달리 글은 기록되고 축적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글 은 이전 세대의 문화와 성취를 습득할 수 있게 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글, 즉 글쓰기는 고도의 의사 표현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글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어야 함과 동시에 이를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제된 표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 1) 말과 글의 힘

① 말의 힘

과거: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 '침묵은 금(金)이다'

말의 중요성 강조. 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의미



말실수에 대한 경계보다는 말을 적게 하는 태도가 미덕이라는 인식이 깊어짐.



과거 주입식 교육과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말하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

#### 현재: 자기 PR의 시대!!

인간의 의사소통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앞 다투어 말하기와 글쓰기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함.

- ■타인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효과적인 수단인 말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 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 ■우리에게 '말'이란 행동을 이끌고 자발적인 행동을 촉진한다.
- ■말은 나만의 세계에 빠져 나와 세상과 만날 수 있다.

#### ② 글의 힘

- 자아성찰의 과정
- : 깊은 사색과 넓은 지식 → 나의 견해를 표현하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
- PAPER POWER!
- : 펜이 '종이'를 만나면 <u>공유와 전파, 확신, 지지</u> 등의 무수한 기회의 힘이 가질 수 있다. 글이 써진 종이는 세상 어느 것보다 강력하다.
- ■말이 가진 휘발성과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다.
-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과정

- 글은 엉켜진 생각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신비한 마력이 있음.
- 글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옮기는 능청스러운 힘이 있다.

#### 우리는 글을 쓰면서 새로운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든다.

나 논리적 사고 나 창의적 사고

- ■글쓰기는 경쟁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표현의 도구가 됨.
  - → 글쓰기는 사회 활동에서 자신의 능력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임. 《예》 기획서, 보고서 각종 공문, 발표문 등》

#### 2) 말과 글의 차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도 잘 쓸까? 반대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말도 잘 할 수 있을까? 물론 언어능력이 높은 사람은 둘 다 잘 할 가능성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말과 글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연설가라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말과 글의 특성

말의 특성	글의 특성
•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렵다.
예) "그것 좀 가져다줄래?"	• 글 자체의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 문법적으로 맞지 않거나 미 완결된 표현이 나타난다.	• 말에 비해 형식성이 강해 일정한 형식과 틀을 갖추어
• 발화한 내용을 완전히 동일하게 반복할 수 없다.	야 한다.
• 글에 비해 한 번에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적다.	• 단어나 문법이 정제되어 있어 비문법적이거나 미 완
• 축약 표현, 잉여적인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결된 표현이 거의 없다.
• 실수와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관찰 할 수 있다.	• 한 문장 또는 한 단락 내에 많은 양의 정보가 압축되
• 비언어적인 요소와 다양한 담화 표지가 나타난다.	어 있다.
• 강세, 리듬, 억양 등 운율적 요소가 중요하다.	•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예) "요즘 참 바쁘시네요."	

#### 3) 문어/구어의 특성을 고려한 쓰기

글쓰기는 문어를 통한 의사소통 활동으로 문어의 특성을 고려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이나 SNS의 발달로 인해 상호 간의 즉각적인 소통에 중점을 둔 글쓰기가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매체에서의 글쓰기는 상대방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대부분 일상적인 표현들을 소재로 삼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쓰기와 달리 구어적인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나 비평문, 보고서 등과 같이 문어의 형식을 갖추어야하는 글임에도 인터넷이나 SNS 상의 글쓰기처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글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글을 쓸 때에는 적절한 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IP! 문장에 자주 나타나는 구어적 표현들

- ☑ 동생이랑 콘서트에 다녀왔다
- ☑ 우리나라 복지 정책을 선진국의 복지 정책하고 비교해 보겠다.
- ☑ 근데 예년에 비해 올해가 유난히 덥다.
- ☑ 어쩔 때는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 활동하기-사고하기

■ 우리는 일상의 많은 시간을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글을 읽거나, 글을 쓰며 지낸다	ŀ.
자신의 일상에서 말과 글이 힘이 있다고 느꼈거나 중요하다고 느낀 경험을 써 보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03.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고와 표현의 중요성

우리는 4차 산업시대를 융합의 시대라고 한다. 융합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공 분야 간의 벽이 없어야 한다. 분야 간의 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화 시대에는 리더가 의사소통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주요 항목이 되었으나 융합의 시대에는 전체 구성원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경쟁력이 생긴다. 앞으로는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내용을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느냐도 함께 평가되어 지는 사회인 것이다. 협업의 중심에는 바로 '소통'이 있다.

또한 최근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 산업 간 지식·정보·기술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와 같은 다양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즉 우리 사회는 초연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등은 대중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사회·경제 전반의 환경변화로 인해 의사소통 빈도가시·공간적으로 확대되었고, 디지털화 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 졌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에 블로거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투버 등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대중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같은 디자이너, 변호사,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많은 양의 지식을 가진 인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사고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말하기와 글쓰기는 개인이 가진 사고력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글쓰기와 말하기는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파급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의 인식을 깨우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새로운 대안을 발견하게 하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사회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언어를 통해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대안적 아이디어의 발상이 될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과 글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 전반에 공유된다. 따라서 말과 글은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 활동하기-교과목 이력서 쓰기

■ 교과목 이력서 쓰기를 바탕으로 나의 삶과 '사고와 표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 과목이 왜 중요하며 이 과목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 핵심 역량 교양 교과목 이력서(소통의 끈)

※ 강의계획서를 확인 후 작성해 주세요.

학과			학년/학번		이름	
질	문			과목이란? (3줄 이상 작성 일이 생각한 과목에 대한 7		
답	Ħ					
질	문		학생을 거치며 사고의	목 이력 이야기를 쓰세요. 라 표현 또는 의사소통과 된		
답	변					
질	문	'소통의 끈(사고	와 표현)' 과목의 수	업 운영방법에 대한 나의	의견	
답	변					

질문	'소통의 끈(사고와 표현)' 과목 교수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답변	
질문	'소통의 끈(사고와 표현)' 과목과 나의 미래(졸업 후 모습)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질문	'소통의 끈(사고와 표현)' 과목과 세상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질문 	'소통의 끈(사고와 표현)' 과목에 임하는 자세
답변	
질문	'소통의 끈(사고와 표현)' 을 통해 배우고 싶은 내용
답변	

1-2

## 사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 학습목표

- 사고의 가장 기본은 사실적 사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다.
- 생각을 비판적으로 하기 위한 구성요소 및 평가 기준을 배울 수 있다.
- 비판적 사고를 길러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하위역량]

### 의사소통 능력/사실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이해와 실제

### 01. 사실적 사고란?

텍스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텍스트 속에 제시되어있는 내용상의 정보와 구조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는 곧 텍스트 속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주관적인 해석이나 비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사실에 맞게 텍스트를 전개하고 구성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사실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인문학적 사고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이다. 제시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그 뒤에 문제점을 찾아 평가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해력이다. 그리고 그 독해를 기반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이 1994년부터 실시해온 성인인구의 문서 독해 능력 측정도구를 우리 국민에게 적용한 결과, 일상 문서 해독능력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

다. 봉급명세서, 영수증, 구직원서, 열차시간표, 지도, 약품설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문서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OECD국가들 중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독해 능력은 단순 문맹률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문맹률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거의 100%에 육박하는 문해율과 너무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는 문서 독해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글을 읽고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을 읽고 중요한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을 고를 수 있어야 하면 그를 바탕으로 글을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1) 요약하기

• 요약하기: 글의 핵심부분을 객관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

#### ▶요약하는 방법

- 1.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 2. 주제를 파악한 후에는 다시 처음부터 꼼꼼히 읽으면서 각 단락의 성격과 핵심문장을 찾는다.
- 3. 핵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는다.
  - → 글의 핵심 내용은 단락의 처음이나 끝에 제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4. 글의 핵심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은 생략한다.
-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든 것(예증)
- 자신의 의견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경우(상술)
- 반박 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경우(반증)
- 5. 글 전체의 구조를 파악한다.
- 6. 한 편의 글을 쓸 때와 마찬가지로 주제문과 개요를 작성한다.
  - → 숙련되었다면, text에 제시된 언어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 7. 작성한 개요를 놓고 그 연결 관계를 생각해본다.
- 자논리적 인과관계
- 접속어 지시어의 적절한 사용
- 8. 분량에 맞게 요약문을 작성한다.



## ■ <u>\*\*</u> 활동하기 – 문단 요약하기

■ 다음 문장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2~3문장으로 요약하여 보자.

현대사회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가치 전도(價值類例) 현상을 들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몽된 인간 사회에서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인류의 스승인 성인들의 삶이 그러하였고, 각종 교육과 종교 및 문화 또한 바로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이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가치 전도 현상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황금만능주의, 과학 기술 만능주의, 감각주의 등과 같은 물질적 가치가 활개를 치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나 도덕적 가치, 자연 환경의 가치 등이 약화되고,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조차 망각하는 아노미(anomie)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나타나게 되었다.	간 사회에서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인류의 스승인 성인들의 삶이 그러하였고, 각종 교육과 종교 및 문화 또한 바로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이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가치 전도 현상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황금만능주의, 과학 기술 만능주의, 감각 주의 등과 같은 물질적 가치가 활개를 치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가치나 도덕적 가
	이 나타나게 되었다.

#### 2) 분석하기

분석은 나누어 해석한다는 의미이다. 글은 건축물과 같다. 하나의 건물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집을 예로 든다면 지붕, 기둥, 벽면, 바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건축물을 구성한다. 글 또한 이런 요소들 간의 조합들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고 각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분석하기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편의 '주장하는 글'을 읽고 '글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은 곧 그글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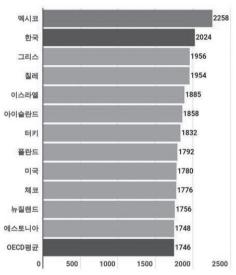
앞서 '요약하기'는 주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자하는 바가 무엇이다'를 밝힌다. 그러나 분석하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글쓴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른바 맥락을 파악한다. 또 때로는 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유추'해 내는 것도 글을 분석적으로 읽기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는 문서를 접하다 보면 분석하는 대상이 때론 글뿐 아니라 표, 그래프,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크게 '텍스트'라 칭한다. 활동 2를 통해 제시된 그래프를 분석하여 보자.



## 활동하기 – 그래프 텍스트 분석하기

■ 다음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좀 더 유의미하고 목적에 맞도록 분석하여 글로 써보자.

####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2017년)



체코				1776						
뉴질랜드				1756		_				
에스토니아				1748						
OECD평균	_	_	· ·	1746		_				
			1-11							
0	500	1000	1500	2000	2500	_				

## 02. 비판적 사고

오늘날 우리는 정보사회답게 수많은 말과 글로 배열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래 서 우리는 그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비판적 능력 사고 을 길러야 한다. 우리들이 비판적 능력 또는 사고를 기르는 것은 크게는 민주사회의 책 임감 있는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한 것이며 작게는 대학생으로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비판적 사고 를 바탕으로 말과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사고와 표현 이라는 과목의 학습은 지성인 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 로 받아들이기 쉽다. 예컨대 "너는 매사에 왜 그리 비판적이냐"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남의 말에 토를 달거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나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처 럼 비판 이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주장(말) 글에 대해 분석하고 종합하여 그 주장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따져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비판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적 사고는 우리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배 제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들의 감정이나 정 서는 어떤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동시에 우리들의 비판적 사고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다 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비난과 비판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데 비난은 자신의 감정 을 담아 어떤 주제나 주장을 부정하는 과거 지향적 사고인 반면 비판은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합리적 사고이기 때문이다.

#### 1)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구성 요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각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글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글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상대를 설득할 수 있으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처럼 글을 읽을 때나쓸 때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또는 보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따져보는 것을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라고 한다. 이 사고의 구성요소는 일반적으로 8가지 혹은 10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나 모든 글 읽기와 글쓰기에 가지의 구성요소가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학 술논문에서는 가지의 구성요소를 갖춘 글이 많다. 그렇지만 주장을 담은 사설을 제외하고 사 실 보도를 원칙으로 삼는 신문기사는 '정보'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기술된 글이기 때문에 가정, 함축과 귀결, 추리와 결론 등의 구성요소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글의 성격에 따라 구성요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8가지의 비판적 사고를 위한 구성요소에 대해알아보자.

#### (1) 목적(purpose)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표현 과목을 신청했다면 학점을 받기 위해서거나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수강했다 는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수강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위도 달라진다. 즉 수강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목적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때뿐만 아니라글을 읽거나 쓸 때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말이나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은 하나 내지 둘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말이나 글의 목적도정보제공이나 사실을 알기 위한 것 설득을 위한 것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글을 읽거나 쓸 때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고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 글을 잘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말이나 글에서 말하는 이와 글쓴이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2) 현안 문제(question at issue)

무엇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듯이 글을 읽거나 쓸 때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도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인문학적 사고와 자기표현표현의 강의 목적이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 말하기와 글쓰기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 이라고 할 때 그 목적에 따른 현안문제는 수강 학생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다. 따라서 우리가 글을 읽거나 쓸 때는 현안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현안문제를 그 사람 글쓴이와 말하는 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잘살펴야 한다. 그러면 글의 핵심적인 내용도 파악하기 쉬워진다. 이처럼 말과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물음이나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개념(concept)

개념이란 어떤 말이나 단어가 가진 의미를 말한다. 우리는 어떤 말이나 글이든 반드시 개념을 사용하여 말하거나 서술한다. 따라서 어떤 글을 읽거나 글을 쓸 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자신이 표현한 개념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개념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글을 읽는 사람에게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시된 글의 중요한 개념을 잘 파악하면 글의 전체 주제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 따라서 말이나 글에서 추론이 의존하고 있는 핵심 개념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 글을 쓴 사람은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4) 가정(assumption)

모든 일은 어떤 가정을 전제로 시작한다. 말이나 글도 어떤 배경을 가정으로 삼아 시작한다. 물론 가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암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분석적 내지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말하는 이나 글쓴이가 어떤 가정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글을 작성하는 자신이 가정하고 있는 전제나 배경지식이 잘못된 것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한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이처럼 우리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전개할 때는 주된 가정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 (5) 정보(information)

정보란 증거 관찰 자료 연구 유추 권위 등으로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여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점은 글 읽기와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글에는 주제 또는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또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글을 쓸 때도 읽는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6) 추리와 결론(inference and conclusion)

분석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말과 글의 주장 내지 말과 글의 결론을 파악하는 것이다. 논증적인 글에는 반드시 전제와 결론이 있다 다시 말해 어떤 가정이나 전제로부터 추리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여기서 추리란 전제로부터 결론에 도달하는 완결된 형태의 사고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논증이란 추리가 언어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논증에서 얻은 결론이 주장이며 전제는 그 근거 내지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어떤 글의 주장을 추리를 통해 알아내는 것 글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만의 미육군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그들이 철수할 경우 생기는 이익이면 예상되는 미연방 정부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나아가 냉전은 10년 전에 종식되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이 철수할 때다.

앞의 세 문장은 마지막의 결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전제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글에서 추리는 '때문에, 이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등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우리는 말과 글에서 주요 결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떤 추론 추리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야 한다.

#### (7) 관점(point of view)

관점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언어 · 문화 교육 등을 통하여 얻게 된 세계를 보는 지평을 말한다.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할 때 대체로 자신의 관점 내지 일정한 틀 범주 안에서 한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을 가진 말과 글이라고 주장하여도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자신의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관점도 어떤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일한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어떤 글을 읽을 경우 글쓴이가 예를 들어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 문화적 관점 등 어떤 관점으로 글을 쓰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말과 글에서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8) 함축과 귀결(implication and consequence)

귀결이란 어떤 주장이 암암리에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 즉 어떤 주장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함축된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분석적 내지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럴 때 제시된 말과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제시된 말과 글의 추리과정에서 주요한 함축과 귀결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상으로 가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말하였는데 이 구성요소들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신체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듯이 8가지의 구성요소들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2)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평가기준

앞에서 기술한 8가지의 구성요소는 분석과 비판적인 사고를 위해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지만 이런 구성요소로 분석된 내용 까지도 평가해야 한다.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배경지식이나 전문지식 이외에도 일반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비판적으로 글을 읽거나 쓸 때 내용이 분명한지 정확한지 명료한지 적절한지 중요한지 폭이 넓은지 논리가 있는지 공정한지 충분한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까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지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전문 학자들은 말한다.

#### (1) 분명함(clarity)

분명함이란 말이나 제시된 글의 주장이나 내용이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말이나 글은 나 자신의 생각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함은 다른 평가 기준 정확성 명료함 적절성 등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그것이 불분명하면 진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정확한지 명료한지 중요한지 깊이가 있는지 논리가 있는지를 결정할수 없다.

#### (2) 정확성(accuracy)

정확성이란 어떤 주장의 내용이 실제의 사실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이것은

어떤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진술내용은 부적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거북은 10년 정도 산다."라고 할 때 그 주장은 분명하지만 정확성을 결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말과 글이 정확한지 또 내 생각과 주장이 정확한지를 평가해야 한다.

#### (3) 명료성(precision)

명료함이란 어떤 주장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다'라고 할 때 이 주장은 모호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주장에는 부유한 국가의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주장의 경우 '부유한국가란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는 조건을 붙여야만 명료한 문장이 된다.

#### (4) 적절성(relevance)

생각을 진술한 어떤 주장이 적절하다는 것은 생각과 주장이 물음이나 주제[문제]와 잘 맞는다[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글의 주장이 글의 목적이나 관점 등과 적절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적절성은 주장[결론]과 근거[전제]사이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으로 근거가 주장을 정당화시켜 주는지를 살펴야 한다.

#### (5) 중요성(importance)

말과 글이 아무리 적절한 주장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부차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중요성이란 어떤 주장 주제 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주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목적이나 개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나 개념에 주의하는 것이다.

#### (6) 깊이(depth)

깊이란 생각과 진술된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룬다는 말이다. 모든 문제에는 표면적 인 것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룰 때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동 성범죄자는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은 분명하고 명료하고 정확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피상적 주장이 된다. 왜냐하면 아동 성범죄를 일 으킨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나 성범죄자의 심리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7) 폭넓음(breath)

이 평가 기준은 관점과 관련이 깊다. 즉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관점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관점만을 취하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이나 측면에서 진술된 내용을 살펴야한다.

#### (8) 논리성(logicalness)

말과 글에서 앞뒤 모순된 내용이 있거나 논지 전개 과정이 달라지면 호응을 얻지 못한다. 논리성이란 진술한 말과 글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추리를 통해 논리적으로 결론이 도출되는가를 꼼꼼히 조리 있게 따지는 것을 말한다.

#### (9) 공정성(fairness)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왜곡시키며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자신의 말이나 글을 통해 상대의 동의를 얻고 설득하려면 생각뿐만 아니라 말과 글의 내용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 (10) 충분성(sufficiency)

어떤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 주장을 할 때는 쟁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적에 맞게 충분하게 추리했는지 상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고려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말과 글의 내용은 불충분한 것이 되고 만다.

앞에서 제시한 8가지 구성요소와 10가지 평가기준이 모든 글 읽기와 글쓰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구성요소와 평가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글의 주제나 글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은 글 읽기와 글쓰기에서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다만 비판적 글쓰기에서는 구성

요소를 앞세우고서 평가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반면 비판적 글 읽기에서는 평가 기준을 먼저 내세우고서 구성요소를 따져야 한다. 결국 비판적 사고의 구성요소와 평가기준은 동전의 양 면과 같다고 할 것이다.

#### TIP! 일상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방법

- ☑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 텔레비전 뉴스도 열심히 보고, 신문도 꼼꼼히 살피고, 인터넷 서핑을 통해 네티즌의 여론도 알아야 한다.
  -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한 뒤에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라.
  -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을 하는 훈련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 ☑ 근거 있는 주장을 습관화 하라.
  - 우리는 매 일상 설득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 설득은 '논리'에서 나온다.
- ☑ 지식이 주는 기쁨을 즐겨라.
  - 시험 취업이 아닌 세상살이의 기본을 배운다고 생각하자
  -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 그것으로 자신의 무기를 만들어라.
- ☑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라.
  - 미디어를 잘 활용해 배경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
  - 정반대의 논조를 가진 두 가지이상의 신문을 비교 분석하며 읽는 것이 좋다.
- ☑ 독서를 습관화하라
  - 가접적 경험의 세계를 넓혀라.



## 활동하기 – 대중매체 속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라.

1. 다음은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날 인터넷 뉴스의 표제들이다. A와 B의 표제를 읽 고 분석해 보자. 그 다음 왜 대중매체 속 텍스트를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로 보아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써 보자.

	19대 대선 투표율	
	투표율 호남·수도권 오르고 영남·충청 낮아져 2017.05.10 ♀ 100+	
A일보	19대 大選 투표율, 80% 넘지 못한 이유당일 투표 율은 51%대(종합)	
	2017.05.10 ♀ 1,300+ [19대 대선] 시민들 SNS 독려도 투표율 끌어올렸다	
	서울경제 2017.05.10 ⓒ 10+	
B일보	[19대 대통령 문재인] 투표율 77.2% 20년 만에 가장 높아	
	2017.05.10 © 50+	

2.	. 아래 'A, B' 글을 읽고 각각 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글을 쓴 의도가 어떻게 더른지 써 보자.
A	기자는 시장을 끝까지 캐물어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어냈다. 시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k기업은 선거자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제공하고 시와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В	시장은 기자의 끈질긴 질문에 못 이겨 결국 숨기려 하던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시장은 친구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선거자금을 받고 시와 계약을 따내도록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1-3

## 창의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

#### 학습목표

- 창의적 사고의 개념 및 특성 등을 학습함으로써 창의적 사고가 무엇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인문학적 사고의 개념과 범위, 특성을 이해한다.
-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을 살펴보고 인문학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다.

#### [하위역량]

### 의사소통 능력/창의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

### 01. 창의적 사고

#### 1) 창의적 사고의 개념

창의적 사고란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고 유형이다. 어떤 산출물을 만들어냈느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리고 개인의 어떤 내적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새롭고 독창적인 산출물인지.

얼마나 곤란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지.

무엇을 · 어떻게 경험했는지

등이 창의적 사고를 정의하는 다양한 준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를 어느 하나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사고는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낳는 능력이자 한 개인의 내·외적 경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관여한다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 요컨대 한 개인이 경험한 사실들이 새롭고 문제해결을 가능케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의적사고이다.

따라서 창의적 사고는 번득이고 예리한 통찰을 바탕으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면서 문제해결을 가능케 하는 고도의 정신 기능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 2) 창의적 사고 과정의 모형

창의적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다양한 개념 정의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사고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결안을 검출해 내기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해결안을 바탕으로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를 고려할 때 창의적 사고의 본령에 이를 수 있다.



결국 창의적 사고란 비현실적이고 괴상한 어떤 생각의 유형이 아니라 문제적 상황에 대처하며 해결해 나아가는 현실적 사고 능력인 셈이다.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스캠퍼 등을 위시로 한 창의적 사고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사고의 기법들이다.

#### 3) 창의적 사고의 방법

창의성이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과 사물이 이루어진 기본 원리를 알고 이용해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창재(創才)라 하는데 창의성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생각의 연습을 통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풀리지 않던 문제가 불현듯 떠올라 한 가닥의 실마리를 포착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깨달음의 기회를 얻는 것 역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 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진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때 생각과 경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을 되풀이하며 생각의 자발적 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 생각이 때로는 괴상하고 비상적일지라도 아울러 문제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하위화 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1)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브레인스토밍이란 '두뇌 폭풍'을 의미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에서 폭풍이 몰아치듯 생각을 많이 내놓게 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물품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여러 아이디어를 회의하는 과정에서 유래한 집단 발상법으로 한 주제 에 대하여 생각의 끊김없이 연상되어 가는 것을 모두 사고하여 나가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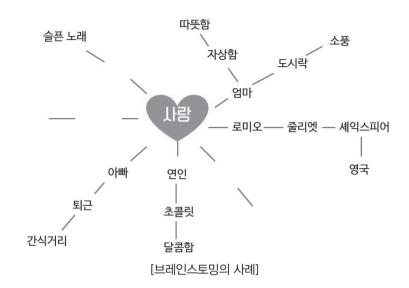
브레인스토밍의 절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단독, 혹은 6~12명의 구성원으로 한다.
- ② 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유발상을 한다. 예: 대머리에게 샴푸를 파는 방법
- ③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을 준다.
- ④ 지도 그리기 형태로 한다.
- 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낱말에 동그라미하고. 활용할 것을 미리 표식한다.

브레인스토밍은 집단발상법이자 양을 통해 질을 확보하는 방법이니만큼 여러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논의할 주제는 하나로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논제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하자. 게다가 정해진 논제의 실물이 제시되면 더욱 좋다. 가령 어떤 제품에 대한 포장 문제가 사안으로 떠올랐을 경우 실제품과 포장 재료를 공개하여 보고 만지는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데에 시간을 엄격히 배정하여 아이디어를 속출시킨 후 분산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분류화하면 된다. 이 때 아이디어들은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끼리 분류해 나가면서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지도 그리기를 하도록 하자.

요컨대 글제나 대상이 주어지면 자유로운 연상을 통한 발상을 하되 한 가지의 맥락이 유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맥락과 속성을 지닌 일력의 연상들이 이루어져야 지도 그리기가 가능해진다.



가령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제는 '사랑'이다. '사랑'을 연상하면 떠오르는 낱말들이 지도 그리기 되어 있는데 애초에 연상의 과정 속에서 낱말들은 분류화 되지 않고 산만하게 분산되 어 있었다.

엄마, 연인, 도시락, 초콜릿, 아빠, 퇴근, 간식거리, 소풍, 따뜻함 자상함. 슬픈 노래, 로미오, 줄리엣, 셰익스피어……

이처럼 분산되어 있는 단어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해 나가면서 위와 같은 지도 그리기가 가능해진다. '사랑'이라는 주제 하에 아빠, 엄마, 연인, 로미오라는 주가지가 설정되고 이에 따른 하위가지들의 연상이 계속 이어진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산만하고 분산된 생각들을 한데 모아 분류하고 구조화하여 사고의 질서를 체계화하는 방법이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에 유용하다.

#### (2) 마인드맵(mind map)

마인드맵이란 글을 쓰기에 앞서서 '마음 속에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다. 마인드맵은 방사사고 혹은 복사 사고라 한다. 마인드맵은 브레인스토밍과 달리 시각적 기호, 도상, 그림 등을 이용하여 연상 사고를 하는 방법이다. 마인드맵의 순서 및 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제와 관련한 단어를 나열한다.
- ②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을 한데 묶어 분류한다.
- ③ 대표성 있는 주제어를 정한다.
- ④ 주가지와 부가지를 하위화한다.
- ⑤ 단어를 대신할 이미지를 넣는다.







[학생들이 작성한 마인드맵]

### (3) 스캠퍼(SCAMPER)

스캠퍼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어느 외국의 기업에서 제품이 갖고 있는 기존의 속성이나 모습을 변화시켜 개선을 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특히 브레인스토밍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사고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이 사고의 제약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도출해 내는데 비해 스캠퍼는 사고의 영역을 일정하게 제시하면서 다소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기법의 이름은 대치하기(Substitution), 결합하기(Combine), 적용하기(Adapt), 수 정하기(Modify), 확대하기(Magnify), 축소하기(Minify), 다르게 활용하기(Put to other uses), 제거하기(Eliminate), 거꾸로 하기(Reverse), 재정리하기(Rearrange)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스캠퍼(SCAMPER)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선할 제품이나 문제를 확인하기
- ② 문제에 SCAMPER 질문을 적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 ③ 최상의 아이디어를 결정하기

위와 같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검토한 후 항목별로 구체적인 핵심 질문 7개를 중심으로 리

스트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스캠퍼이다. 그동안 스캠퍼는 많은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사람들에게 유용할 만한 물건들을 만들었다.

### ① 대치하기

대치하기란 기존의 사물, 용도, 방법 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방안을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 때 'A 대신 B를 쓰면 어떨까?' 혹은 '개선을 하기 위해 무엇을 대체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잘 깨지는 유리컵 → 종이컵/플라스틱컵, 휘발유 사용 차 → LPG 사용 차 헤드폰 → 이어폰, 전기 에너지 → 태양 에너지, 스케이트 → 롤러 브레이드

● '대치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② 결합하기

결합하기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결합, 혼합해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 때 'A와 B를 결합하면 어떨까?' 혹은 '무엇과 무엇을 과연 엮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야채+빵+고기 → 햄버거, 껌+아이스크림 → 알껌바, 시계+라디오 → 시계 겸용 라디오, 지우개+연필 → 지우개 연필

● '결합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③ 적용하기

적용하기는 어떤 형태나 원리, 방법을 다른 분야의 조건이나 목적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

을까를 생각하는 방법이다. 이때 'A를 B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C에 쓰면 어떨까?' 혹은 '무엇을 바꾸거나 교환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장미가시 덩굴을 적용한 철조망, 산에 적용한 산악용 자전거, 겨울철에 적용한 스노우체인, 바퀴 달린 신발, 산우엉 가시를 적용한 매직테이프

●'적용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④ 수정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수정하기는 기존의 상품이나 아이디어에 색, 모양, 의미 등을 조금 수정해서 변화를 주는 방법이고 확대하기는 크거나 넓게, 무겁게 그리고 축소하기는 작거나 가볍게, 늦게, 가늘게 축소해서 새로운 것을 생산하거나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이 때 'A안의 a를 변화시키면 어떨까?' 혹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어떨까?' 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형태를 변경한 납작한 전구, 향기나는 크레용, 향기나는 볼펜 ⇒ 수정하기 대형 TV, 빅버거, 대형 찐빵 ⇒ 확대하기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휴대폰, 접는 우산, 접는 지휘봉 ⇒ 축소하기

●'수정·확대·축소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⑤ 다르게 활용하기

다르게 활용하기는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때 'A를 B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기존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은 무엇일까?'와 같은 지문을 제시한다.

폐기된 기차와 배, 비행기를 활용한 카페나 레스토랑, 폐교를 활용한 전시회장이나 개인 서재. 종이를 이용한 사물함, 살균 램프

●'다르게 활용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⑥ 제거하기

제거하기는 사물의 어떤 부분을 삭제해서 새로운 것이나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 때 'A를 구성하는 a, b, c 중 무엇인가를 빼면 어떨까?'와 같은 지문을 제시한다.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무선 전화기, 오픈 카, 터치스크린, 손잡이 없는 문, 무가당 과일 주스, 추를 없앤 시계, 세 칸까지 회전문

● '제거하기'로 이루어지 거이나 마득 수 있는 거에는 무엇이 있을까?

9 1 1 1 - 1 1 1 - 1	THE ATTECH ME A WELL AT MENT.	

### ⑦ 거꾸로 하기, 재정리하기

거꾸로 하기는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 안과 밖, 위와 아래, 원인과 결과 등 형태, 순서, 방법, 아이디어를 거꾸로 뒤집어서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방법이고, 재정리하기는 형식, 순서, 구성을 바꾸어서 새로운 상품이나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이 때 '순서를 바꾸거나 뒤집어 볼 것은 있는가'?' 혹은 'AB를 BA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와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여름에 겨울 상품 세일하기, 고객이 상품을 디자인하기 양면 옷 ⇒ 거꾸로 하기 7시에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기, 재택근무하기, 다섯 발가락 양말 ⇒ 재정리하기 ●'거꾸로 하기 혹은 재정리하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만들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 (4) PMI

PMI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고 방법이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 후 이익이 되는 점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 ●PMI의 순서 및 요령

Plus(좋은 점)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다음에 Minus(나쁜 점)되는 부분을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Interesting(흥미 혹은 이익이 되는 점)되는 점을 생각한다. 이러한 플러스식 사고법은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데에 비해 마이너스식 사고법은 주변의 것들에 대해 고마움과 신중함을 길러 준다. (정기철,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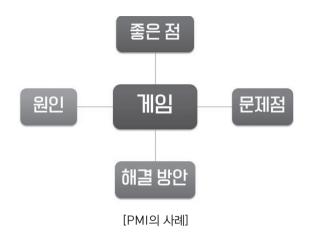
#### ●플러스식 사고법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된다면… 멋진 집을 갖는다면…

### ●마이너스식 사고법

내일 전쟁이 일어나 모두 죽는다면… 내가 불치의 병에 걸린다면… 내가 갑자기 소인이 된다면…

과 같이 사고하며 말하기나 글쓰기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대상에 대한 좋은 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서 문제가 일어난 원인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 된다. 다음과 같은 그림 형태로 좋은 점,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을 도표 화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자.



위의 사례를 가지고 PMI를 생각해 보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인터넷에서 주로 행해지는 온라인 게임을 의미한다.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좋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게임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PMI에 근거한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게임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재미있다, 신이 난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등등의 사고가 연상될 것이다. 좋은 점이 열거 되었으면 이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게임은 중독화된다,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과도한 시간에 치중한결과 병을 얻는다, 돈을 낭비한다 등등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게임을 하는 것일까? 게임에 중독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PMI 사고 과정에서 중요하다. 아마도 중독될 만큼 게임을 재미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문제는 지나치게 상업성이 추구된 나머지 게임의 윤리나 도덕성이 배제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게임에 몰두하는 게이머의 상태도 문제가 될 것이다. 현실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게이머 자신이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임 중독 때문에 일상생활은 물론 삶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계속 방치하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문제를 PMI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자.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개요작성이 가능해진다.

#### 〈개 요〉

서론: 현실 감각을 상쇄하는 게임의 문제 본론:

- 1. 게임의 좋은 점
- 2. 게임의 문제점
- 3. 게임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
- 4. 게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결론:

이상과 같이 PMI는 기본적인 개요 작성을 하는 데에 용이하다. 아울러 논술글을 쓰기 위한 논리적 사고를 이루어가는 데에 이 방법을 수월하게 활용될 수 있다.

### (5) 발문 만들기

질문 생성을 하는 사고 방법이다. 질문은 모르는 것이나 의심나는 것에 대해 물어 답을 구한 것인데 비해, 발문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되물으며 답을 구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모두 물음의 형식을 빌려 답을 구해나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학습의 대상(텍스트)을 미리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 물음과 대답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발문에 가까우니만큼이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발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질문하기는 흔한 주변의 일상사들에 대한 통찰과 호기심을 갖는 데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쉽게 간과해 버리기 쉬운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의심을 갖고 질문을 해보기 시작하자. '저건 무엇이지?', '왜 저렇게 생겼지?', '왜 저렇게 움직이지?' 등등 이러한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점차로 사고의 확대와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하기의 과정 속에서 발문하기는 가능해진다.

발문을 하기 위한 대상(텍스트)은 독서물이든 영상물이든 혹은 주변의 사소한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소설이든 영화이든 무엇이든 간에 구체적인 질문의 대상(텍스트)을 상정해 놓고 의미를 탐색해 하면서 발문하는 습성을 길러보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고가 확대되고 창의력이 증대될 수 있다.

발문하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도하면 좋다. 우선, 대상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사고를 확대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이해를 위한 질문 그 자체로만 끝나버리 면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의 확대라는 것은 이해의 차원에서 창조의 차원으로 사고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상(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창의적 사고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사고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머무르지 않고 발문하기가 '나'를 변화시키는 형태로 나아갈 때 진정한 발문하기의 본령에 도달할 수 있다. 발문의 본질과 목적은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가지고 발문을 할 경우 먼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질문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고는 바로 논리적 · 비판적 사고이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사고가 '센은 누구인가? 치히로는 누구인가? 센과 치히로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왜 이름이 두 개인가? 누가 주인공인가?' 등등의 질문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시작-중간-끝 형태의 구조에 맞추어 간략하게 스토리를 요약할 때 가능하면 각 단계별로 한 문장 위주의 스토리를 작성하는 것이좋다. 이 때 문장은 가급적이면 '주어+목적어+서술어' 형태의 기본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스토리를 살펴보다 보면 앞뒤 진행된 과정의 이유들이 밝혀진다. 알아보니 동일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름이 두 개인 건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센이 된 치히로는 왜 이름을 찾으려 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름을 찾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러한 질문을 탐색해 나가다 보면 영화에 대한 이해는 물론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밝혀진다. 그리고 이 질문 들은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로 환원된다.

실제 '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름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등등에 대한 자기 탐색의 질문들. 결국 발문하기는 대상(텍스트)을 중심으로 질문자와 응답자 간에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것이 발문하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본령이다.



# 활동하기-창의적 사고 활동

■ '나의 인생의 로드맵'을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작성해 보자.

### 02. 인문학적 사고

### 1)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의 한자어에는 사람 인(人)이 처음에 들어간다. 그리고 인문학을 영어로 'Humani ties'라고 쓴다. 이처럼 인문학은 '사람이 핵심이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문학 은 '인가에 대한 학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말로는 인문학이 어떠한 학문인지 파악하기 힘 들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고대 그리스와 로 마 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학문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인문학이라는 개념의 가 장 오래된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paideia)'이다. 교육 혹은 학습이라는 뜻의 파이 데이아는 기원전 5세기 중반의 소피스트들이 젊은이들을 도시 국가의 건전한 시민으로 키워 내는 것을 의미했으며 여기에는 체조, 문법, 수사학, 음악, 소학, 지리학, 자연철학, 철학 등 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에 라틴어 '후마니타스'(humanitas)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을 가 지고 있는데 기원전 55년 케케로(Cicero)가 쓴 『웅변가에 관하여(Oratore)』라는 책에서 처음 으로 쓰였으며 웅변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이었다. 즉 그리스·로마 시대에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 교육을 의미하던 인문학은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 중세 의 신중심의 부정적 인간관을 극복하면서 고대의 인간관을 다시 계승하면서 인문학은 '교양 을 위한 학문', '인간의 정신을 고귀하고 완전하게 하는 학문'으로 주장되었다. 19세기 경에 와 서는 세계와 세계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자연과학의 자료와 방법으 로부터 분리되면서 인문학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데 인문학이 사실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학문이라는 점에서는 르네상스인들이 정의한 인문학의 개념 과 전통이 거의 후대에 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의 진짜 특성은 자연과학의 차이 점을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인문학을 대표하는 학문으로는 문학. 역사. 철학이 있 다. 이 학문들의 공통적 요소를 살펴보면, '인간의 언어', '인간의 윤리, 상상력, 합리적 사고',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이 핵심이다. 이것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차이점이다. 쉽게 말해 '인 간만이 가지는 것(인간의 고유성)에 대한 탐구와 교육이 인문학의 본질이다.

우리는 <u>문학 작품</u> 해석을 통해 우리는 세계, 사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며 인간의 삶에 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갖게 된다. 또 <u>역사적 기호</u>를 통해 인류로서의 우리의 객관적인 자화상과 그 의미를 배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학

의 기능은 인류의 집단적 자기인식에 있고, 이러한 자기 인식의 의미는 지평선 상에서 인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 또 철학을 통해 세계 전체에 대한 진리도 알 수 있지만 이에 앞서 모든 기호들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유하는데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교육이라고 불리었던 것이 인문학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 짐승과 다른 '수준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지는 고차원적 능력은 대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후천적인 학습과 자극, 교육이 없으면 인간은 심지어 언어도 구사할 수 없고, 윤리와 도덕도 모를 것이며 사고력도 낮을 것이다. 즉, 교육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유사한 '미개한' 상태가 된다. 반면, 인문학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능력은 점점 더 향상된다. 언어를 구사하고,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며 복잡하고 고등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인문학적 사고는 인간을 '높은 수준'으로 계발시켜 준다.

### 2) 인문학적 사고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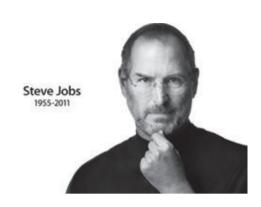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다들 살아간다. 이러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해결책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주목받고 있다. 전 IBM 회장이었던 루 거스너는 "기업은 직원들에게 기계 조작법이나 마케팅 계획 수립은 손쉽게 가르칠 수 있지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다"라고 말하며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중요시 여겼다고 한다. 사람이 했던 업무의 거의 모든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음에도 인간을 채용하는 이유는 기계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바로 '인문학적 사고'라고 본 것이다. 인문학적 사고의 핵심은 개인을 돌아보는 '성찰적 사고'와 개인과 타인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에 있다. 성찰과 비판을 통한 인식 변화, 사회 공동체가 지닌 문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 이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기 위해 타인과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역량과 자신의 뜻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도 요구된다.

### (1) 왜 기업은 인문학적 사고를 강조하는가?

최근 들어 '인문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무척 높아졌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산업계의 동향'과 관련이 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을 기술과 융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점차 인문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발생한 변화는 경영진들 스스로 가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히고 국내 취업 현장에서도 기업들은 구직자 및 직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삼성과 현대기아자동차, SK 등의 대기업은 입사시험에 '역사', '철



학' 등의 인문학 문제를 포함시켰고 모 대기업의 채용 자가소개서에는 '최근에 기업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하는 이유를 써라'는 항목이 등장하기도 했다. 마치 인문학적 사고가 취업을 위한 새로운 '스펙'처럼 여겨지고 있다.

#### ☑ 비지니스 전문가들이 밝힌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

- 창의력
- 상상력
- 도덕성
- 종합적 판단력

- 문화에 대한 이해
- 소통능력
- 융합적 사고

다음에 나타난 역량들은 모두 인문학과 관련이 있고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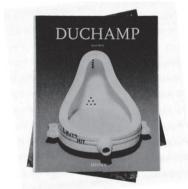
- ① 인문학적 소양은 좋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좋은 의사결정에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드러기 위해서는 사안을 넓게 봐야하고 과거를 알아야하며,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람들의 심리, 사회와 역사적 배경,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인문학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② 도덕성은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 : 경영자와 사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기업의 성장 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 ③ 인문학적 소양은 융합적 사고를 만들어 준다.
  - : 창의력은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의 기반을 갖추었을 때 생겨난다. 특히 인문학과 관련 된 콘텐츠를 많이 알거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면 창의적 사고에 큰 도움이 된다.

### (2) 품격을 만드는 인문학적 사고

품격을 만드는 인문학적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와 철학의 메시지를 말한다. 즉, 작가 혹은 생산자가 역사와 철학에 대한 소양이 있고, 그 작품 또는 제품을 통해 인문학적 '메세지'를 전달하고 표현할 때 품격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메시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철학적

사고'에서 비롯된다. 만약 아무런 인문학적 소양이 없이 그저 남을 따라 하려고 하거나 시류에 편승한 제품을 만들면 품격은 발생하지 않는다. 얼마 전 현대 미술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 엄청나게 고가라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작품은 팝 아트의 대표작으로 누구나 쉽게 접하고 대량 생산되는 매체인 만화의 한 장면을 커다란 캔버스에 확대하거나, 흔히 볼 수 있는 식료품이나 대중스타의 모습을 찍어낸 것이 대표적이다. 그





[마르세 뒤샹의 '샘']

런데 왜 이런 팜 아트가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리고 미술 평론가와 최상류층 재벌가들에게 각 광받을까? 거기에는 바로 '높은 품격'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즉 흔한 소재들을 미술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허물고 산업사회의 현실을 예술 속에 적극 수용하고자 한 측면 때문이다.

또 하나의 예로는 마르셀 뒤샹의 '샘을 들 수 있다.' 뒤샹은 공중 변기를 그저 미술관에 가져다 두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만, 수준 높은 예술로 인정 받고 있다. 예술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뒤엎고 기성제품을 그대로 갖다 전시함으로써 창작 행위에 대한 개념을 흔들었고 '예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수준 높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높은 품격은 대상이 되는 재료와 인문학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

### (3) 도덕성이 능력이 되는 시대

적극적인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으로 성공을 거두는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생산 과정의 비윤리적 요소를 없앤 기업이 각광받고 있는 현상은 소 비자들이 점점 '정의'나 '도덕성'같은 요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발브랜드 탐스 (TOMS)는 사람들의 도덕과 자선에 대한 갈망을 성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만들었다. 탐스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데에는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부된다.'라는 정책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 정책이 좋은 아이디어인 이유는 기부의 권한을



[탐스의 사회공헌]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놓았기 때문이다. 기업이 기부를 많이 하면 평판은 좋아지겠지만 그 선택권이나 평판은 온전히 그 기업이 독식한다. 그러나 탐스는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기부하는 방식을 찾았고, 착한 일을 하고 있다는 평판과 함께 기부로 인한 만족감을 소비자와 함께 누렸다. 이렇게 기업은 사람들의 도덕성과 정의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다만 이는 기회주의적으로 보여서는 안되고 올바른 윤리 정신을 바탕에 두어야한다. 즉 우리 시대에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그밖에 내구성 높은 제품을 만드는 것, 애프터서비스를 잘해주는 것 또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더불어 소수의 취향을 고려해 그들이 구입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일 도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

인문학적 사고가 도덕성을 증가시키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 1. 공부 방식 = 책을 읽고 토론하기 → 간접적 경험을 통한 공감
- 2. 이상주의 = 이상적 규범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맞게 '행동' 하려 함
- 3. 인도주의 = 인간 또는 인간성에 대한 사랑을 함의

### (4) 논리력와 창의력를 키우는 인문학적 사고

인문학은 '교양 증진'을 목표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고력, 도덕성, 표현력, 창의력의 계발이 목표이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유대인들의 속 담처럼, 인문학은 결과적인 습득보다 '정신적인 수준'과 '능력' 계발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 그 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비판적 사고'이다.

### ① 인문학은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가.

인문학에서는 수백, 수천 년 전의 고전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가르침을 모두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인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고전이 모두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상과 지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서이다. 대학에서도 인문학 관련 학과에서는 서술형 답안을 쓰도록 하는데, 글의 내용이 단지 텍스트 줄거리의 요약에 불과하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기존의 사상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해야만 한다.

### ② 인문학은 어떻게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가.

인문학 공부는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상상은 지각을 통해 외부 사물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것이다. 자연과학은 '경험'과 '관찰'을 하는 학문이다. 반면에 인문학은 '사고'와 '상상'을 하는 학문이다.



■ 우리 사회에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문제에 관심 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아이디어를 내보자, 그리고 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써 보자.

예)

- 1. 관심 사회 문제: 기후변화 / 환경문제
- 2. 캠페인 주제: 부산 한 바퀴 대학생 릴레이 플로킹 캠페인
- 3. 캠페인 아이디어 구상 이유 및 내용:
- 부산 각 대학의 대학생들이 각 대학별 플로킹 크루를 만들어 부산 한 바퀴를 돌며 플로킹을 하며 환경 캠페인을 펼침.
- 이 아이디어는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마라톤'. '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접목한 캠페인이다. 이는 대 학생이 지역 사회 발전 및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캠페인을 개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플로킹은 스웨덴에서 시작된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리는 환경운동이다. 이 환경 운동에 대학생과 부산 지역이라는 요소를 추가해 보았다. 부산 전 지역을 부산 대학생들이 '릴레이'형식 으로 '플로킹'을 하면서 부산 지역민과 대학생에게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이때 준비물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든 생수가 아닌 환경을 생각한 '텀블러에 든 생수'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플로킹'이라 는 '환경운동'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학습 2.

글쓰기



## 2-1 / 바른 글쓰기

#### 하습목표

- 올바른 글을 쓸 수 있다.
- 올바른 글을 쓰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알고 있다.

한편의 글 안에는 많은 문장, 단락, 문단이 들어 있다. 문장은 다시 구와 단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 구와 단어 등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나 단어 등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적 연관성을 모를 때에는 올바른 주제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올바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 01. 어휘 선택

단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문장이나 문맥 속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사전 찾기를 통해 꾸준히 보완할 수 있다. 반면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상위어와 하위어 등과 같이 단어의 상호 관계를 통해 그 뜻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문맥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그글이 사용되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

### 1) 유의어의 선택

유의어(類義語)는 '소리는 다르나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말한다. '어머니', '모친', '자당어른', '엄마', '맘'은 소리는 다르지만 뜻이 비슷하므로 유의어다. 이와 같이 유의어는 원 개념

(proto-concept)을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 효과를 지닌 단어를 뜻한다. 이들 유의어는 상황 이나 문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뜻을 가지므로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상황이나 문맥을 통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적 차이를 잘 알 아두어야 한다.

한편 '소리는 다르나 뜻이 같은 어휘들'을 동의어(同義語)라고 한다. 그러나 뜻이 같다는 것 은 지시 대상이 같거나 원 개념이 같다는 것일 뿐 특정 문장에서 쓰면 서로 미묘한 차이가 드 러난다는 점에서 완전한 동의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hat{\pi}\):	예	제
37/2	બા	

	=1 -1 -1 -11	7171	71-1-1	$\Gamma$	=101	14011	1 - 1
다음 밑줄	신 부분에	가성	식압안	난더들	·少い	넣어드	2사

다음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 넣어보자.
<ul><li>1) 결핍, 부족, 부실, 소실, 유실</li><li>• 필수 성분이 하니 달걀이나 우유를 많이 드세요.</li></ul>
• 전쟁 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된 애정에 늘 굶주려 있었다.
2) 여리다, 부드럽다, 연약하다, 순하다
• 엄마는 너무 마음이 누구한테 아무 소리도 못해.
• 순이는 기질이 어디 간들 사랑을 받을 거야.
3) 가무잡잡하다, 거무스레하다, 거무튀튀하다, 시커멓다
• 햇빛 아래서 꾸준히 운동을 했더니 피부가
• 중학교 올라가면서 수염이 나 턱밑이
4) 꺼리다, 귀찮아하다, 혐오하다, 싫증내다
• 자기에게 지나치게 버거운 일은 당연히 마련이지.
• 더럽고 냄새 나는 이 도시를 모든 시민들은 있었다.
5) 이제, 현재, 곧, 금방
• 한 달 전부터 해 오던 일이 비로소 끝날 것 같습니다.
• 예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어의 유의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뒤섞여서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글을 쓸 때에는 가급적이면 고유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쉬운 표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국어의 유의어는 한자어 사이에서 발생한다. '공적(功績)—업적(業績)', '기량(器量)—재능(才能)', '결함(缺陷)—하자(瑕疵)' 등은 기본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 속에서는 같은 어휘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뜻이 같은 다른 유의어를 사용하는 것이 표현의 풍부함을 얻는 데 유리하다. '뚜렷하다-분명하다-확실하다-명료하다' 등은 원 개념은 같지만 문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뜻을 가진다.

높임과 낮춤의 뜻을 가진 '밥-진지', '죽다-돌아가시다', '자다-주무시다', '먹다-드시다-잡수시다' 등의 단어는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 +알아 두기

- ■단어 이상의 단위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이미 제시한 글이나 단락을 가리킬 경우에는 '위의 글에서, 상기한 내용과 같이,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등과 같은 표현이, 글을 마무리할 경우에는 '끝으로, 다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이상과 같이' 등과 같은 말들을 사용할 수 있다.
- ■말 뜻이 서로 다른 어휘를 반의어(反意語)라고 한다. 문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의어를 사용하여 그 뜻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군-적군', '남다-모자라다', '익다-설다' 등

#### TIP!

- ☑ 단어를 올바로 쓰기 위해서는 음운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 두어야 한다. 사잇소리 현상
   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므로 사전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사이시
   옷을 써야 하는 단어들이다.
  -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냇가,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혓바늘, 바닷가, 조갯살, 핏대, 햇볕
  - 멧나물, 아랫니, 텃마당,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깻묵, 냇물, 빗물, 뒷일, 깻잎, 나뭇잎, 댓잎
  - 한자 합성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다음 예들은 헷갈리는 예들이므로 사전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 기급적 사전은 인터넷에 공개된 〈표 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을 이용하도록 한다.

- •말: \*존대말/존댓말, 인시말/\*인삿말, 예시말/\*예삿말, \*혼자말/혼잣말, \*노래말/노랫말
- 값: \*기대값/기댓값, \*대표값/대푯값, \*초기값/초깃값, \*극소값/극솟값, \*최대값/최댓값
- •국: \*두부국/두붓국, \*만두국/만둣국, \*시래기국/시래깃국
- 길: \*등교길/등굣길. 성묘길/성묫길. 휴가길/휴갓길
- 빛 : \*무지개빛/무지갯빛. \*보라빛/보랏빛. \*연두빛/연둣빛. \*우유빛/우윳빛

- •집: \*소주집/소줏집. \*맥주집/맥줏집. 양주집/양줏집
- ☑ 준말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그것은/그건, 그것이/그게, 나는/난, 나를/날, 너는/넌, 무엇을/무얼/뭣을/뭘, 무엇이/뭣이/무에
  - 그렇지 않은/그렇잖은, 적지 않은/적잖은, 만만하지 않다/만만찮다, 변변하지 않다/변변찮다, 남부 럽지 않다/남부럽잖다. 두렵지 않다/두렵잖다. 심심하지 않다/심심찮다. 편안하지 않다/편안찮다
  - 간편하게/간편케, 연구하도록/연구토록, 가하다/가타, 다정하다/다정타, 정결하다/정결타, 흔하다/흔타
  - 거북하지/거북지, 생각하건대/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섭섭지 않다.
- ☑ 다음은 '-이'와 '-히'를 붙여서 부사로 사용하는 예들이다. 꼭 익혀 두어야 한다.
  - '-이'가 오는 경우 : 첩어 명사 뒤(틈틈이, 간간이), 시 받침 뒤(버젓이, 깨끗이), ㅂ 불규칙 용언 뒤(너그러이, 안타까이, 가까이, 두터이), 부사 뒤(더욱이, 곰곰이)
  - '-히'가 오는 경우: 위의 경우 제외(천천히, 담담히)
  - 그 외에는 무조건 외운다(대부분 ㄱ 받침 뒤에 '하다'가 결합될 때) : 촉촉이, 깊숙이, 끔찍이, 나 직이, 가득히, 솔직히, 똑똑히, 엄격히

### **%** 연습문제

- 1. 다음 중에서 원 개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어휘를 찾아라.
  - 1) ㄱ 가끔 ㄴ 더러 ㄷ 이따금 ㄹ 종종 ㅁ 때로
  - 2) ㄱ. 단출하다 ㄴ. 훤칠하다 ㄷ. 홀가분하다 ㄹ. 거뜬하다 ㅁ. 가든하다
  - 3) ㄱ. 구출하다 ㄴ. 구호하다 ㄷ. 구제하다 ㄹ. 구휼하다 ㅁ. 워조하다
  - 4) 기 모험 니 탐조 디 탐험 리 탐색 미 탐사
  - 5) ㄱ. 두둔하다 ㄴ. 아부하다 ㄷ. 싸고돌다 ㄹ. 역성들다 ㅁ. 편역들다
  - 6) ㄱ. 숨기다 ㄴ. 가리다 ㄷ. 감추다 ㄹ. 은닉하다 ㅁ. 은폐하다
  - 7) ㄱ 공부 ㄴ 탁마(琢磨) ㄷ 면학(勉學) ㄹ 면공(免工) ㅁ 학업
  - 8) ㄱ 이행(移行) ㄴ 변화 ㄷ 변이(變移) ㄹ 변천(變遷) ㅁ 변전(變轉)
  - 9) ㄱ. 늙바탕 ㄴ. 늙마 ㄷ. 늙다리 ㄹ. 노경(老境) ㅁ. 늘그막
  - 10) ㄱ. 옹골차다 ㄴ. 암팡지다 ㄷ. 다부지다 ㄹ. 야멸차다 ㅁ. 야무지다

2. 다음 밑줄에 적합한 단어를 넣어보자.
1) 드디어 광개토 대왕은 만주 벌판을 통일하는 을 달성하였다.
2) 김 회장님의 가장 큰 은 외국으로 넘어갔던 기업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3) 학교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박 선생님의 가 결정적이었다.
4) 그분의 을 조사하여 학교에서는 정부에 표창을 상신하였다.
5) 김 검사는 장 의원의 을 추적하여 그를 입건하였다.
3. 다음 표현에서 중복된 표현을 찾아 간단하게 고쳐라.
1) 당시는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2) 모든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모여들었다.
3) 정말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끝내 우리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5) 62 196 662 204 1 E II 1 9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4) 이 문제는 먼저 예습을 해 두어야 한다.
5) 부산역전 앞에서 모두 모입시다.
가 무현되신 효해서 고두 고맙시다.
6) 너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니?
크 즈마 레보타이 카셔스크 샤비 이커지 카거리아시니다
7) 주민 대부분의 찬성으로 이번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8) 돈과 권력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함께 병행했다.

### 2)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선택

말과 글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써야 한다. 격식체는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체를 뜻한다. 반면 비격식체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체를 뜻한다. 나이나 직급, 관계, 친분, 성별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것을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 예 제

다음 예문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말해보자. 또 그것을 각각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바꾸어서 말해보자.

- 1) (부장 → 직원) "자, 잔을 들어서 '브라보'를 외쳐 보자."
- 2) (할아버지 → 동네 아이) "철희 씨. 안녕하세요?"
- 3) (아들 → 아버지) "아버님. 그동안 별고 없이 지내셨는지요?"
- 4) (선생님 → 학생) "당시 대학 진학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 5) (후배 → 선배) "너 오늘 나랑 시내 갈래?"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체라 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주로 어미에 의해서 실현된다. 이 어미를 높임법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 이 어미를 통해서 자신이 사용할 문체적 특징을 표현하게 된다. 다음은 높임법 선어말 어미에 의해 표현된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용례들이다.

어미 형태는 이미 언어적으로 규칙화된 것들이므로 이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시한 어미 형태 들 외에도 상황과 문맥에 맞게 그 외의 어미들에 대해서도 알아 두어야 한다.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평서형	가십니다	가오	가게, 가내	간다	가요	가. 가지
의문형	가십니까?	가(시)오?	가나? 가는가?	가나? 가니?	가요?	가? 가지?
명령형	가십시오	가(시)오 가(시)구려	가게	가라 가려무 나, 가렴	가(세)요	가. 가지
청유형	가시지요	갑시다	가세	가자	가(세)요	가. 가지
감탄형		(시)는구려	가는구먼	가는구나	가(세)요	가. 가지

어미 형태는 이미 언어적으로 규칙화된 것들이므로 이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좀 더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시한 어미 형태들 외에도 상황과 문맥에 맞게 그 외의 어미들에 대해서도 알아 두어야 한다.

### +알아 두기

- 우리말은 높임법이 대단히 발달한 언어이다.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등과 같은 표현을 위해 서 각각의 문법적 수단이 개별적으로 발달해 있다. 이 가운데서 객체 높임법은 어휘적으로 실현되므로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 예) 밥 진지, 집 댁, 얼굴 혜안, 자다 주무시다, 죽다 가시다, 영면하다 등
- '-께서'는 주어를 높이는 주격 조사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께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한다.
- 예) 교수님 께서, 아버님 께서, 사장님 께서 등

#### TIP!

- ☑ 문장의 주어를 높일 경우에는 서술어 어간 다음에 '-시-'를 삽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높임 표현이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어색하지 않다.
  - 예) \*고객님의 주문이 완료되셨습니다. / \*주소가 어디세요? / \*전화번호가 -이십니다. / \*저희 회사의 물건은 고장이 나시면 반환하십니다.

### **2000 연습문제**

1. 다	음 문장을 상황에 맞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어서 말해보자.	
1)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의문형으로) "자. 이제 출석 부르자."	
2)	(선배님에게 동아리 후배가 명령형으로) "선배. 오늘 저랑 밥 먹으러 갈래요?"	
3)	(엄마가 아들에게 감탄형으로) "우리 도련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귀가하셨습니까?"	
4)	(친구에게 청유형으로) "저는 저녁 알바가 있습니다."	
5)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의문형으로) "이 버스 연산동까지 간다.	
2. 다음 표현을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고쳐 보자.		
1)	세대주가 김경상 씨 맞으십니까?	
2)	총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3)	내일이 범칙금 납부 마감일이세요.	

- 4)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올게.
- 5) 쳇, 오늘 선생님에게 개 야단맞았지.
- 6) 고객님에게는 신청한 물건이 내일 가시겠습니다.

### 3) 그 외 주의해야 할 점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상의 문 제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어두 차용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즐, 개, 근자감, 얼죽아' 등과 같이 컴퓨터나 SNS 기기를 통해 또래끼리 통용하는 비표준어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 TIP!

- ☑ 어두 차용어란 단어의 첫음절을 따와서 만든 새로운 단어를 말한다.
  - 예) 모솔(←모태 솔로). 훈녀(←훈훈한 여자). 복붙(← 복사해서 붙여넣기)
- ☑ 어두 차용어는 폐쇄적인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공식적인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친구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어두 차용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단 어들도 은어로서의 기능을 하므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 급식충, 한남 등

둘째, 지나친 추측 표현은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인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해야 할 것 같다, 필요할 것 같다, -리가 싶다, -라고 생각된다' 등과 같은 추측 표현은 글의 진정성이나 객관성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한다.

셋째, 영어나 일본어에서 가져온 번역 투의 표현은 삼간다. 다음은 영어와 일본어에서 들어온 표현으로 전통적인 우리말 표현이 아니다. 이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에 의하면, -에 따르면, -에 있어서, -하게 되다, -하는 편이 좋았을 것 같다, -의 상황에 직면하다, -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적(的), -한다는, -의 1인, -와 회견에서

넷째. 사동 표현을 사용할 뚜렷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주동 표현을 쓴다.

다음의 사동 표현을 주동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1) 연산동 주민에게는 공연 구경을 무료로 시켜드립니다.		
2) 어린애는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됩니다.		
3) 삼촌은 조카를 결국 스님으로 입적시켰다.		
4) 나는 친구에게 가방을 들게 만들었다.		

다섯째, 피동 표현을 사용할 뚜렷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능동 표현을 쓴다.

### ░⊹예제

∰ 예 제

### 다음의 피동 표현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

5) 경찰은 난동범을 겨우 구속시켰다.

1) 나는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2)	친구가 어젯밤에 뺑소니차에 들이받혔다.
3)	인호가 나에게 붙잡혔다.
4)	밤새도록 풀어도 3번 문제는 끝내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5)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쟁취되어야 된다.

여섯째, 가급적이면 부정적 표현은 삼간다. 부정적인 표현은 글쓴이나 글 전체의 내용을 독자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 +알아 두기

### 헷갈리는 맞춤법 문제

둘 중 올바른 표현에 ○표 하라. 단, 답이 둘인 경우도 있다.

1	해가 지자 곧 (칠흑/칠흙) 같은 어둠이 밀려왔다.
2	나는 술 마신 다음 날에는 꼭 (북어국/북엇국)을 먹는다.
3	그는 고향을 떠나 (홀홀단신/혈혈단신)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4	하객 설문 조사에서 결혼식 피로연 음식 중 (뷔페/부페) 음식이 1위를 차지했다.
5	손님, 값을 (치루지도/치르지도) 않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6	그 배우의 (가는/얇은) 팔을 보니 부러웠다.
7	담배는 건물 밖이나 (휴게실/휴계실)에서 피우세요.
8	소문을 들은 그녀는 (어의없다는/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9	아침 식사로 (스프/수프) 한 그릇만 먹었더니 오전 내내 배가 고팠다.
10	창 (넘어/너머) 보이는 하늘이 오늘은 더욱 파랗다.
11	선생님은 (우레/우뢰)와 같이 큰소리로 나를 꾸짖으셨다.
12	그는 마음에 찔리는 구석이 있는지 연신 상사에게 (굽신거렸다/굽실거렸다.)
13	올해 5살이 된 내 동생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개구쟁이/개구장이)다.

14	몇 개가 빠졌는지 (갯수/개수)를 차근차근 잘 세어 보이라.
15	(위층/윗층)에 사는 부부가 밤새 싸우는 바람에 한숨도 못 잤다.
16	꼬마가 던진 (돌맹이/돌멩이)에 맞아 눈가에 멍이 들었다.
17	우빈 씨, 영화표가 두 장 있는데 (있다가/이따가) 퇴근하고 같이 영화 볼까요?
18	내일 (뵈요/봬요) / 내일 (뵙겠습니다./봽겠습니다.)
19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	아니, (어따 대고/얻다 대고) 반말이야?

### 02. 바른 문장 쓰기

글은 문단을 구성하는 몇 개의 단락, 단락을 구성하는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단이나 단락, 문장은 다른 문단이나 단락, 문장과 논리적인 관련성을 맺으면서 연결되어 있다. 이때 문단이나 단락은 핵심 문단이나 단락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그 외의 문단이나 단락을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은 그 자체가 독립된 논리적 구조체라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완결된 구성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 필수 성분의 명시적인 제시, 수식어와 피수식어와의 정확한 관계, 문장 길이의 조정 등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1) 주어와 서술어의 일치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가 올바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어는 대체로 문장의 앞에서 행위의 '주체'라는 역할을 한다. 반면 서술어는 문장의 끝에 와서 주체의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는 문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주어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고 글을 써야 한다.

특히 우리말은 중주어나 주제어, 서술절 등과 같이 특이한 문장 형태를 가지므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끝까지 확인하면서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번 이상나오는 복합문에서는 대응하는 주어와 서술어를 서로 맞추어 가면서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 **҈⊹ 예 제**

다음 문장은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예들이다. 문장의 문법적 구조에서 특이한 부분을 말해보자.

- 1) 땀이 나서 얼굴이 무척 반짝반짝하였다.
- 2) 오늘 기온이 서울이 영상 34도였습니다.
- 3) 올해 들어 절개지가 좀 더 기우뚱하였다.
- 4) 우리 동아리 계획은 작년 2배의 실적을 올리려고 한다.
- 5) 이 장면은 아마존 밀림을 찍은 사진이다.

위 예제 1에서 '반짝반짝하다'는 대개 사물의 특성을 나타낼 때 쓴다. 따라서 이 단어 대신 '번들번들하다'와 같이 주어인 '얼굴'의 특성과 호응하는 어휘를 써야 한다. 2에서는 '영상 34도'와 호응하는 말이 '기온'인지, '서울'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쉼표를 찍어서 의미적인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3에서 '기우뚱'은 사물이 옆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절개지'와 호응할 수 없다. 4의 '계획'과 서술어 '올리려고 한다'는 호응할 수 없다. 5의 '장면은'과 '사진이다'는 주어와 서술어로 호응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 예 제**

다음 문장은 좀 더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들 예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고쳐 보자.

1) 산 밑에서 부는 바람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의 땀이 잠시 뒤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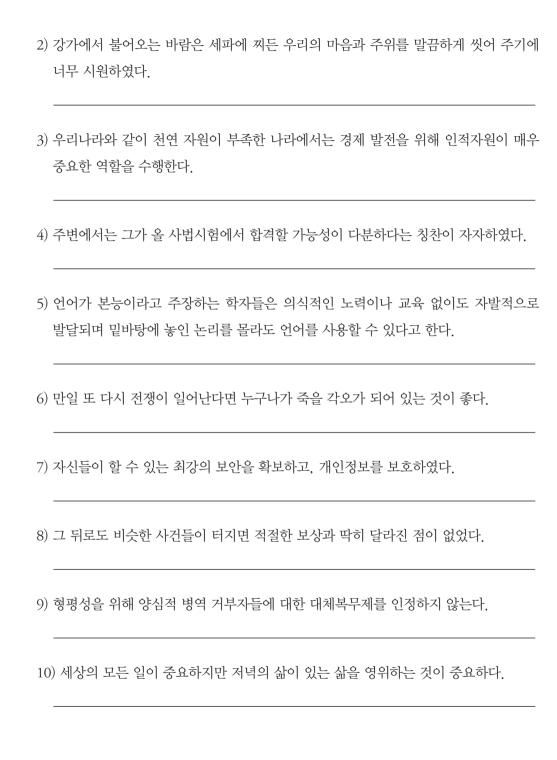
2) 저는 여름휴가를 고등학교 친구가 영월에서 사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3) 상인이 가져온 산나물은 이미 많은 부분이 썩은 곳이 많이 있었다.
4) 간사가 과 학생에게 믿음이 행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5) 교수님께 드릴 말씀은 이번 시험 결과는 결코 제 실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6) 대학생이라면 글과 말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위 예제에서 1은 주어인 '바람이'에 대한 서술어가 없어서 비문이 되었다. 2에서는 '여름휴가를'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비문이 되었다. 3에서는 '많은 부분이 썩어 있었다.'로 고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4는 '행사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과 학생을 믿어야 한다.' 등으로 간단하게 고치는 것이 좋다. 5는 '말씀은'이라는 주어와 '주장하는 바입니다'는 문법적 관련성이 없다. 이 모든 결과는 글쓴이가 감당할 수 없이 문장을 길게 썼기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글은 짧게 쓰는 것이 좋고, 긴 글을 써야 한다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따져가면서 써야 한다. 6은 목적어 '글'과 '말'을 따로 놓고 여기에 맞는 서술어를 각각 사용해야 한다.

### ∰ 예 제

다음 문장에서 성분 간의 관계를 잘 따져 보고 어색하거나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명료하게 나타내 보자.

1)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 2) 필수 성분의 명기

문장의 핵심은 서술어이다. 그런데 서술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성분과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먹다'라는 서술어는 먹는 '주체'와 먹는 '대상'을 요구한다. 이때 '주체'는 문장에서 주어로, '대상'은 목적어로 나타난다. '하늘이 몹시 푸르다.'라는 문장에서 '주체'인 '하늘'은 문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이지만 '몹시'는 필요에 의해 첨가된 임의성분이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수를 자릿수라고 부른다. '푸르다'는 한 자리 서술어, '먹다'는 두 자리 서술어, '주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이때 서술어에 의해 결정되는 자리는 필수 성분으로 실현되므로 반드시 문장에 드러나야 한다.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술어의 특성을 잘 알고 그에 맞는 필수 성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단,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복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물론 문장을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 성분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TIPI

☑ 성분은 서술어 앞에 오는 명사 항을 말한다. 서술어와의 의미적 관계상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필수 성분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성분을 임의 성분이라고 한다. 필수 성분에는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보어, 임의 성분에는 부사어 · 관형어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 예문의 6, 7에서처럼 필수 부사어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

### ░ 예 제

다음 밑줄 부분에 빠진 성분을 적당하게 채워 보자. 그런 뒤 서술어의 자릿수를 고려하여 빠진 성분이 필수 성분인지 임의 성분인지를 판단해보자.

- 1) 생일 선물로 \_\_\_\_\_ 하늘이에게 시계를 선물했다.
- 2) \_\_\_\_\_ 이 옷을 \_\_\_\_ 넣어라.
- 3) 우리는 \_\_\_\_\_ 선생님을 만났다.

4) 나는 호주의 대학	라으로 가는 후배에게 "가서 전화 꼭 해"라고 질
5) 그에게는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6) 친구들과 비교하	·면 브래드 피트처럼 그는 생겼다.
7) 나는	철이 들까요?

렀다

위 예제 2의 '이 옷을 넣어라.'에서 '넣어야 하는 주체'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이므로 생략해도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글 속에서는 구태여 나타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3의 '우리는 선생님을 만났다.'에서 밑줄 부분은 임의 성분이다. 문맥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등과 같은 부사어를 첨가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6과 7에서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고 있다. 6의 '그는 생겼다'나 7의 '나는 철이 들까요?' 자체는 비문이다. 이 경우 '잘'과 '언제(쯤)'라는 필수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부사어 가운데서는 필수 성분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 +알아 두기

- '말하다, 생각하다, 전하다, 전달하다, (소리를) 지르다, 통화하다' 등과 같은 서술어는 '- 라고', '- 하고' 등 과 같은 조사나 동사 앞에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한다. 예) 그는 나에게 "학교 가자."라고 말했다.
- '- 에 따르면, 에 의하면' 등은 '- 라고 한다'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 간사의 말에 따르면 내일은 임시 공휴일이래(이라고 한다). 저녁 뉴스에 따르면 내일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대.
  - '- 과 비교하면. 과 대조하면' 등은 뒤에 비교나 대조하는 내용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 예) 외제 차와 비교하면 국산 차는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 / J-pop과 대조하면 K-pop은 좀 더 열정적이고 감성적이다.

#### TIP!

- ☑ 자신을 주어로 내세우는 글을 쓸 경우에는 '나'라는 주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모든 주어를 '나'로 내세우면 독자가 무척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가 1인칭일 경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나'를 사용하도록 한다.
  - 예) <u>내가</u> 지난해 대학교 생활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우리 학년 전체가 지리산 야영장으로 갔던 것이다.

⊘ 연습문제		
1)	_ 기뻐했다.	
2) 사람은		_ 권리가 있다.
3) 우리는		_ 만났다.
4)		방문하였다.
5) 그에게는		생각했다.
6) 비교하면		크다.
7) 천재일지리	· 	실패할 것이다.
8)	_ 하며	말하였다.

## 3) 어순의 바른 배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은 일정한 순서를 가진다. 서술어 앞에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부사어, 목적어 순으로 성분이 배열된다. 또 수식어는 피수식어 바로 앞에 온다. 수식어 가운 데서는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게다가, 나아가서, 자고로' 등과 같은 문장 부사어는 문장 앞에 온다. 문장이 길어지면 이러한 성분 간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상한 문장이 생성되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hat{\pi}\):	예	제

다음 문장의 수식어가 어디에 가야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1) 정말 나에게 그는 소중한 남자였다.

2)	얼마나 부모님이 그리웠으면 산소를 꼭 하루에 한번은 찾아가겠니?
3)	여러 나라에서는 사망의 기준을 보편적으로 심장이 멈춘 순간으로 생각한다.
4)	전쟁으로 엄청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5)	오늘도 얼마나 자신의 미모에 도취하여 향락에 빠져 파멸하는 사람이 많겠니?
6)	정말 하루 종일 굶는 그에게 무료 급식소의 존재는 중요했다.
7)	아무도 모르게 어제 탐색한 금광으로 가서 금맥을 살폈다.
8)	그들의 제안에는 다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었다.
9)	수수한 옷을 깨끗하게 입은 여학생은 친절한 태도로 안내했다.

위 예제 1에서 '정말'은 '소중한'과 의미적으로 더 가깝다. '나에게'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장 앞으로 끌어올 수도 있다. 3의 경우에는 '경기장'과 '판매기'와 의미적으로 더 가까운 성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 외의 예들도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의미적 중요성에 따라서 재배치할 수 있음을 잘 보여 준다.

## **%** 연습문제

#### 다음은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들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쳐 보자.

- 1) 비록 기합은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동기들과의 단합심도 많이 돈독해졌다.
- 2) 유난히 놀기 좋아하는 난 공부와는 점차 멀어졌고 앞으로의 계획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 3) 지금 생각해보면 불만만 가지고 있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풀었다면 하는 생각도 든다.
- 4) 그 친구도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는지 전화를 했고 삐삐에 음성을 남겼고 그리고 그 것이 덜미에 잡혔다.
- 5) 며칠 뒤 나머지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쫓겨나오다시피 나와야만 했다.
- 6) 가난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과 학교밖에 모를 정도로 친구들과 어울릴 수조차 없었다.

## 4) 문장 길이의 조정

때로 간결한 문장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두세 개의 짧은 수식어를 사용한 단문, 또는 하나 정도의 절이 포함된 복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둘 이상의 절을 포함하는 복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절의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잘 따져서 비문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예 제

#### 다음 예들은 문장의 길이에서 실패한 것들이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간단하게 고쳐 보자.

1)	내가 지난해 대학교 생활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우리 학년 전체가 지리산 야영 장로 갔던 것이 생각이 남는다.
2)	내가 대학교 들어와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은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1학년 때 지금 3학년이신 2학년 선배들과 졸업하신 3학년 선배들과 함께 부산경상대학교 대 부산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가 가장 인상에 남는다.
3)	나는 대학교 들어올 때 1지망이나 2지망에 부산경상대를 지망하지 않았는데 부산경 상대가 되니 처음엔 어딨는지도 몰라 무척 당황했다.
4)	울프는 분명 많은 재산을 가지며 남들로부터 충분히 부러움을 살만 했으나 자살했다.

위 문장은 모두 2개 이상의 절을 포함한 복문이다. 문장의 길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함을 잘 보여 준다. 위 예문 1에서의 전체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다. 따라서 이 주어에 맞는 서술어로 '지리산에서 야영을 했던일이다'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2, 3 또한 전체 주어와 서술어, 절의 주어와 서술어 등이혼란스럽게 배치되어 있다. 4는 연결 어미를 잘못 사용하여 비문이 되었다. 이들 예는 문장이 길수록 쓰기가 더 어려우며, 따라서 긴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관련된 절의 문법적 호응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적 연관성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준다.

1	다음은 지나치게 기 무장	'득이다 이륵	:가격하게 :	고쳐 보자

1)	수십 개의 학교에서 온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가 그 앞에서 독후감을 발표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이끌어 나갈 때는 많이 긴장 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큰 경험이 될 거 라는 생각이 든다.
2)	난 성우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밥을 먹기로 하고 어떻게 해 먹을 것이 없어서 컵라면을 끓여 먹기로 하여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
3)	우리들의 노는 방식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는 것도 재밌다고 느낄 수 있었고 가장 1 학년 때 친구들이랑 논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다.
4)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일부 성매매가 합법이 되어서 독일과 네덜 란드는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한정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해 관리하는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 모두 합법이지
	만 업소를 운영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5)	사형은 오판에 의해 선고되고 집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은 절저한 증거 재판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경찰과 검사나 판사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며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
	은 선입관·고정 관념·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쑤이며, 모함·위금·증거 조작 등 인
	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2. 다	음은 연결 어미를 잘못 사용한 예들이다. 연결 어미를 적당하게 바꾸어 보자.
1)	눈앞에 보이는 적은 양의 금액에 집착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는 권력이나, 소중
	한 가치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2)	첫인상이 아무리 정직하게 바르게 보이더라도 나중의 행동들이 바르지 않다면 첫인
	상은 사라질 것이다.
3)	설정한 목표에 맞지 않는 위치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도전해야 한다.
4)	색안경을 벗고 동성애자를 바라보고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는/미 된 것 기기. 

5) (	아무리	글을	길게 4	쓰고,	글씨를	깨끗이	쓰려고	하다	보니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b>구</b> .

## 2-2

## 전략적 글쓰기

#### 학습목표

- 계획을 충실히 하여 주제가 분명하고 짜임새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 구상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제 글쓰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하위역량]

## 의사소통 능력/전략적 글쓰기 과정

## 01. 주제 선정

글을 쓰려면 우선 무엇에 관해 쓸 것인지가 당연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글로 쓰려고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주제이다. 주제의 선정은 글쓰기에서 잘 꿰어야 할 '첫 단추'이자, 반 이상에 맞먹는 '시작'이다. 그만큼 주제의 선정은 글쓰기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한 편의 학술적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술적 글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그것은 어떤 대상에서 가치 혹은 문제를 발견하여 그것이 왜 가치 있는지혹은 왜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치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학술적 글쓰기의 첫걸음은 가치가 있거나 혹은 문제가 되는 대상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러한 대상이 곧 학술적 글의 주제가 된다. 무엇이 학술적 글을 위한 가치 있는 주제인지, 어떻게 학술적 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제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자.

#### 1) 주제의 구상

글의 주제를 정하는 데에는 크게 큰 범위의 주제가 주어지는 경우와 내 스스로 주제를 결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수나 글을 공모하는 단체 등이 큰 범위의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이나 '지식의 융·복합을 위한 방안'과 같이 큰 틀에서 주제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로 글을 쓸 때에는 자기가 미처 몰랐거나 관심을 두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탐구하면서 문제의식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쓴 글에는 깊이와 진정성이 담기게 된다. 스스로 주제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치 않다면 자문자답을 통해 자기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다.

## 2) 주제의 초점화

글의 주제를 너무 넓게 잡으면 수박 겉핥기식의 추상적인 내용, 하나마나한 빤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글이 재밌고 내실 있어지려면 주제의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처음 구상한 주제의 범위를 좁혀 보는 주제의 초점화(focusing) 작업이 필요하다.

가령 처음의 주제를 '환경 문제'로 정했다고 해보자. 이 주제는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좁혀 나갈 수 있다.

#### 환경 문제

- ▶ 환경 호르몬의 문제
- ▷▶ 음식 포장 물질의 환경 호르몬 문제
- ▷▷▶ 음식점 배달 음식에 쓰이는 일회용 용기의 환경 호르몬 문제

환경 호르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그러나 음식점 배달 음식의 일회용 용기로 대상을 좁히면 참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다.예를 들어 우리 동네 음식점 열 곳을 표본 조사하여 배달 음식에 일회용 용기가 어느 정도나 쓰이고 있는지 말할 수 있다. 또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나무젓가락은 사양하고 각 가정의 젓가락을 쓰자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 3) 주제문 작성

아름드리나무도 한 톨의 씨앗에서 자란다. 아무리 긴 글이라도 그런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주제문이 바로 그것이다. 주제문이란 글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평서 문이자 긍정문으로 된 단 하나의 문장으로 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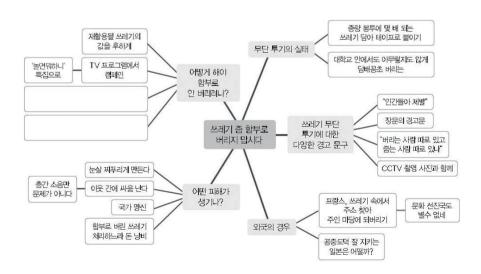
예) 대학 내에서 소통과 상호 존경을 바탕으로 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선후배 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 02. 내용 구상

많은 사람들이 주제문을 작성하고 나면 이시점에서 자료의 수집으로 바로 넘어간다. 그런데 그 전에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절차가 있다. 그것은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의 정리이다. 글에서 자기의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를 정립해 두지 않은 채 자료의 수집으로 건너뛰면 자료에 이끌려 정작 내 생각은 없는 글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집필 계획을 세우는 이 단원에서 글의 주제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단계적으로 잘 정리해보기로 한다.

#### 1) 마인드맵으로 구상하기

길을 떠날 때에는 종이에 그려진 지도든 머릿속에 그려진 지도든 우선 지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방향을 정하고 발걸음을 뗄 수 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여서 펜이 지나가야 할 지도도 없이 노트부터 펼치면 글쓰기는 길을 잃기 쉽다. 글쓰기의 지도로써 가장 간편한 도구가마인드맵이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없애자'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예이다. 자신의 생각으로 빈 가지를 채워 보자.



#### 2) 문장 메모로 구상하기

구체적인 생각은 문장으로 써야 비로소 풀려 나온다. 그러므로 글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상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맵으로 작성한 내용을 문장으로 간단히 서술해보는 것이 좋다

다음은 앞에서 작성한 마인드맵에서 내용을 추려 문장으로 풀어 서술한 것이다. 여기에 이어 마인드맵에서 자신이 작성한 부분을 문장으로 서술해보자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 〈쓰레기 무단 투기의 실태〉

길 가다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정량의 배는 되는 쓰레기를 담아서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그럴 거면 뭐 하러 '종량제' 봉투에 담나. 기업이나 공장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각하거나 오 폐수를 불법으로 흘려보 내는 뉴스도 종종 보았다.

쓰레기 경고 문구도 참 많이 보게 된다. 쓰레기 무단 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 주는 예다.

우리 동네 전봇대에 붙어 있던 시적이고 압축적인 경고 문구. "인간들아 제발." 그런가 하면 읽는 데 1분은 족히 걸릴 장문의 경고문도 있었다.

우리 학교 라운지에 붙어 있던 경고 문구.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나." 노트를 자른 조그만 종이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았었다. 아마 청소 아주머니가 붙여 놓으신 듯.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화가나고 실망하셨을지…….

####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피해〉

자기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고발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여기저기 나붙는 상황. 층간 소음만이 이웃 간 싸움의 다가 아닌 것이다.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웃 간의 반목과 다툼이 자라나고 있다. 정해진 곳에 정해진 방법으로 분리해서 버리면 청소 비용을 아끼고 나아가 재활용품이 되어 돈을 벌게 해주는 쓰레기. 하지만 아무데나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청소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야말로 쓰레기일 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돈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이 도로의 쓰레기를 보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까. 한마디로 국가 망신이다. 관광 한국을 홍보하려고 막대한 비용을 들이기 전에 쓰레기부터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할 방법〉

쓰레기 중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고물상에 내다 팔 때 돈을 좀 후하게 쳐 주면 어떨까.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버릇이 재활용할 쓰레기를 골라내는 정성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 많은 방송 프로그램 중에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왜 그리도 없을까. 〈놀면 뭐하니?〉에서 캠페인성 프로그램을 한번 내보내면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 〈놀면 뭐하니〉 PD에게 정말이지 한번 간절히 부탁 해보고 싶다. 쓰레기에 관한 캠페인 프로그램을 특별 기획해 주었으면 한다.

-	

## 03. 자료 수집과 정리

글의 핵심은 논의에 대한 근거이다. 따라서 이 근거를 확보해 줄 적합하고 풍부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 아래에서 글쓰기를 위한 자료를 어떻게 찾고 분석할지 공부해보자.

#### 1) 자료 찾기

자료는 우선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른 이가 가공해 놓지 않은 자료는 1차 자료이고, 가공해 놓은 자료는 2차 자료이다. 또한 자료는 현장 자료와 문헌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현장 자료는 내가 직접 찾아 가서 보고 들으며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답사 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료가 현장 자료라 할 수 있다. 문헌은 주로 문자화된 자료를 말한다. 1차 자료와 현장 자료는 2차 자료와 문헌에 비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만큼 가능한 한 그와 같은 자료를 다뤄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1차 자료나 현장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참고문헌을 찾기 위해 소장처 및 도서관을 찾아 발품을 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해야 자료를 찾기 위해 들였던 노력과 자료에 대한 애착이 글에 녹아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열람까지도 할 수 있게 된 만큼 우선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참고문헌을 찾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할 사이트는 소속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이다. 자기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단행본을 대출해보는 것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 여러 곳의 중요한 도서관 홈페이지와 논문 DB들이 링크되어 있으며,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이곳의 자료를 이용하면 유료 자료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논문 DB는 각종 논문을 인터넷상에서 바로 열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이다. RISS를 이용할 때에도 소속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그곳에 링크된 RISS로 들어가야 유료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알아 두기

소속 도서관을 통해 자료를 이용할 때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서비스가 있다. 우선 상호 대치라는 것은 자기의 소속 도서관에 없고 다른 도서관에는 있는 자료를 소속 도서관으로 배달하여 대출해 주는 제도 86

이다. 또 워문 복사 서비스가 있다. 소속 도서 관에 없는 책이나 논문 등의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소장 도 서관에서 복사하여 본인의 소속 도서관으로 배달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상호 대차 및 원무 복사 서비스 는 RISS 등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 학술적 글쓰기의 자료 찾기에 참고할 만한 인터넷 사이트
  - 각 대학의 도서관 홈페이지
  - 한국연구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DBPIA http://www.dbpia.co.kr
- 교보문고 스콜라 http://scholar.dkyobobook.co.kr
- 한국학술정보 http://kiss.kstudy.com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http://www.ndsl.kr

tip! 부산경상대학교 '일민도서관' 이용하기 https://lib.bsks.ac.kr

#### 2) 자료 독해와 정리하기

일정한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할 때는 참고문헌을 취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찾은 참고문헌을 읽는 것도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참고문헌이 란 것은 내 주제와 백 퍼센트 부합하기보다 일정 부분 연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이다. 참고문헌의 목차를 보고 해당 부분을 골라서 읽는 발췌 독을 하면 한정된 시간 안에 보 다 많은 참고문헌을 읽을 수 있다

찾은 참고문헌을 모두 읽고 나서 글을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읽었던 자료들 을 다시 읽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읽으면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두거나 그것을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독서 메모'라고 한다. 독서 메모를 할 때는 참고문헌의 서지 사항과 주요 내용이 있는 쪽수까지 함께 적어 두면 좋다. 그래야 해당 부분을 다시 찾아 읽고자 할 때 편리하며, 각주 처리를 제대로 하여 표절을 피할 수 있다.

독서 메모는 인용 메모와 요약 메모, 감상 메모로 나뉜다. 인용 메모는 자신의 주장의 주요 논거가 될 만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그대로 오려 붙이기식으로 옮겨 적는 것이다. 요약 메 모는 워저에 있는 내용을 줄이거나 풀어서 다시 기술하는 것이다. 내용을 줄이더라도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핵심 문장 몇 개만 골라내어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은 피해야 한다. 또한 내 글을 읽는 독자를 위해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 등을 독자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표현으로 쉽게 쓰는 것도 필요하다. 감상 메모는 인용 메모나 요약 메모에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다. 자료를 읽을 때 생각나는 자신의 견해는 다른 자료를 읽고 정리하다 보면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함께 적어 두면 자신의 글을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상 메모의 경우에는 원저자의 견해인지 자신의 견해인지를 구별하여 적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원저자의 글은 인용 표시를 하고 자신의 견해는 맥락에 맞게 연결하여 글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활동하기−자료 정리하기**

■ 아래의 글은 나그림 씨가 쓴 '콜라주의의 진화'란 제목의 글로 나비캐스트(http://navicast\_navigate\_com/contents\_nhn?=134&leafId=134)에 올라와 있는 것을 2015년 6 월 10일에 읽고 일부 발췌한 것이다. 읽고 콜라주의 개념과 표현 효과 등에 대하여 자신 이 이해한 내용으로 쉽게 풀어서 다시 쓰시오.

콜라주(collage)라는 용어는 콜라주룩, 포토콜라주, 콜라주 테라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된다. 콜라주 기법이 사용된 이러한 작품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순된 충동이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색다른 미 (美)를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래는 '풀로 붙이는 것'의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기법은 피카소 를 비롯한 입체파(큐비즘) 화가들이 화면의 채색효과나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화의 한 부분에 신문 지나 악보 등의 인쇄물을 풀로 붙여서 표현하는 파피에 콜레(종이 붙이기)를 발전시킨 것에서 비롯한다. 천, 머리카락, 실 꾸러미, 철사, 모래 등 본래 상관관계가 없는 이질적인 재료들을 최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 른 방식으로 결합시켜 만들게 된 것이다. 그 후 이와 비슷한 수법이 현실의 다양성을 화면에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어 네오 다다, 팝 아트, 소설, 건축, 패션, 무용, IT 등의 영역에서까 지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전혀 엉뚱한 소재끼리 조합하여 별개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비유적, 연상적, 상징적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영역의 경계가 회화 작품에 머물지 않고 확대된 것이다.

자료 제목	저자명	검색 일자	
사이트명	웹 주소		
요약 메모			

## 04. 개요 작성

앞서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하여 글의 내용을 구상해보았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조사·분석하며 글의 주제에 관한 지식과 사고를 확장했다. 이제 본격적인 집필로 진입해야 할 단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상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글의 개요 작성이다.

#### 1) 1차 개요

개요는 곧 글의 틀이다. 개요를 특히 잘 짜야 하는 부분은 글의 본론이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으나, 서론과 결론은 본론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각각 본론을 소개하고 정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론의 내용이 잘 마련되면 서론과 결론은 거의 자동적으로 작성이 된다. 그리고 다리가 세 개이면 상이 안정되게 설 수 있듯이, 본론도 보통 세 부분이 마련되면 주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구상에서 다루었던 주제를 가지고 본론 세 부분을 기본으로 한 개요를 아래에 작성해보기로 한다.

개요를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1차 개요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글에서 꼭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주로 간결하고 자유롭게 작성해보도록 한다.

## 2) 2차 개요

1차 개요를 여러 차례 수정해 2차 개요, 즉 완성된 개요로 만들어 나간다. 상위 목차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하위 목차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목차의 문구도 정확하고 간결하게 다듬는다. 이렇게 완성된 개요는 곧 글의 목차가 된다.



# ■ 발동하기 – 1차 개요 작성하기

주제문: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을 줄여나가야 한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정말 많다.
-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각양각색의 경고 문구가 이를 보여 준다.
- 쓰레기 무단 투기의 적발 건수도 매우 많다.
- 힘들게 구축한 '관광 한국'의 이미지가 쓰레기 더미에 깔린다.
-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
  - 함부로 버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 ■쓰레기 무단 투기를 없앸(줄일) 방법
  -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 · 고물의 값을 올리자.
  -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오락 프로그램)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자.
- ■쓰레기 무단 투기를 없앨(줄일) 방법
  -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 · 고물의 값을 올리자.
  - 인기 있는 방송 프로그램(오락 프로그램)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자.

(1) 개요에 적은 세부 내용 가운데 배치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런 내용이 있
다면 그 위치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 말해 보자.
(2) 여러분이〈2. 내용 구상〉단원에서 마인드맵의 빈 가지에 채워 넣었던 내용에 자료 조
사를 통해 발전시킨 지식과 생각을 더하여 빈 부분을 작성해보자.



# 활동하기-2차 개요 작성하기

제목: 쓰레기라고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서론	
2. 본론 1) 쓰레기 무단 투기의 현황 (1) 경고 문구를 통해 본 현황 (2) 적발 건수를 통해 본 현황	
2) 쓰레기 무단 투기의 피해 (1) 이웃 간의 불화 (2) 사회적 비용의 낭비 (3) 국가 이미지가 실추됨	
3) 쓰레기 무단 투기의 대책 (1) 폐품 가격 인상으로 쓰레기의 자원화 유도 (2) 방송 캠페인 제작으로 시민 의식의 각성 촉구 (3) (4)	
3. 결론	
(1) 위의 항목 중에는 서술 형식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부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 이를 찾아 같은 형식으로 고쳐 보자.	한 군데
(2) 1차 개요에서 자신이 써 넣은 내용으로 위 개요 3)의 (3), (4) 항목을 작성해보지	ŀ.

2-3

## 효과적인 글쓰기 방법

#### 학습목표

- 글쓰기의 기본 원칙을 익혀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 재미있는 글쓰기 연습을 통해 글쓰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하위역량]

## 의사소통 능력/효과적인 글쓰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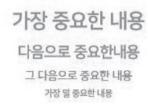
## ´ 01. 글 잘 쓰는 기본 원칙

글을 잘 쓰는 것은 재능일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아니다! 글을 잘 쓰는 것은 오로지 습관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한다. 글 솜씨가 뛰어난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을 유심히 지켜보아라. 그렇다면 그들이 중요한 글쓰기 원칙 몇 가지를 완벽하게 익힌 다음 글을 쓸 때마다 그것을 되풀이해서 활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글 잘 쓰는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 1) 두괄식으로 써라

우리가 평소에 쓰는 글은 대부분 설명에 속한다. 신문기사, 대학과제물로 제출하는 에세이, 업무용 문서와 편지 등등이 그러하다. 보통 설명문은 한가지 주제나 쟁점을 설명하거나요약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나 결론이 가장 앞에 나와야 한다. 왜 이 글을 썼는지 알려준 다음,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뒤이어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소설을 포함한 창의적인 글은 즐거움을 주거나 감각을 새롭게 일깨우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글이라면 결론이 뒤에 나와도 된다. 뜻밖의 결론이라는 것도 필요한 법이니 말이다, 하지만 설명문이라면 결론을 숨기면 안 된다. 곧 바로 알려줘야 한다. 무엇을 설명하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글을 쓰고 있다면 "이건 비밀이야" 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론을 마지막에 쓴다. 그래서 노련한 작문 교사들은 학생들의 글쓰기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 결론을 쓴 마지막 문장을 동그라미 쳐서 가장 처음으로 옮겨놓는다. 결론을 마지막에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글은 뒤집힌 피라미드형식으로 쓰는 것이 더 가독성이 높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래의 그림을 기억하라. 즉 두괄식 글쓰기를 사랑하라는 말이다.





## 2) 접속사를 사용하라

'그러나'와 '하지만' 같은 접속사들은 언어 세계의 신호등이다. 접속사를 사용하면 글의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접속사는 글 속의 대조나 예시, 연속이나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다음의 글을 보면 이해가 쉽다.

시간을 관리하려면 <u>첫째</u> 효과성, <u>둘째</u> 효율성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효율성은 어떤 일을 가장 빠르게 해내는 것을 가리킨다. <u>반면에</u> 효과성은 '적절한' 일을 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u>따라서</u> 효과성이 효율성 보다 더 포괄적이고 유용한 개념이다. 그 일의 필요성 자체를 고민하게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접속사를 사용하면 글쓰기가 쉬워진다. 어떤 주제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확실 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바로 가장 흥미로운 형태는 아닐지라도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글이 탄생할 것이다. 첫째, 주제를 정한다.

둘째 결론을 쓴다.

셋째,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덧붙인다.

넷째, 접속사를 사용해서 나머지 내용을 잇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였	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 셋째,	첫째둘째, , 예를 들면,	게다가,
	마지막으로,	

#### ■ 접속사의 종류

1.연속 접속사

초록불 "같은 흐름으로 가세요"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러 한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동시에

2.예시 접속사

깜박이는 초록색 "속도를 줄이고 내용을 살피세요"

첫째·둘째·셋째, 예를 들면, 일 례로, 사실상, 좋은 예로



3. 대조 접속사

"곧 흐름이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한편, 반면에, 반대로

4. 결론 접속사

빨간불 "이제 곧 결론에 도착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요컨대,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종류	의미 및 예
연속 접속사	같은 흐름으로 계속 진행
	예)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측면에서, 의심할 여지없이, 동시에
예시 접속사	내용을 덧붙임
	예) 첫째·둘째·셋째, 예를 들면, 일례로, 사실상, 좋은 예로
대조 접속사	곧 흐름이 바뀜
	예)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한편, 반면에, 반대로
결론 접속사	곧 결론에 도착함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그러므로, 따라서, 요컨대,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 3) 쉬운 표현을 사용하여라.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쉬운 표현을 써야 한다. 글을 간결하게 쓰고 싶다면 더 쉽고 더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 원칙의 핵심은 어렵고 구체적인 단어를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적인 글을 쑬 때 되도록 쉽고 간단한 말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즉독자의 수준에 맞는 쉽게 읽히고 이해가 되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사용을 사용하고 있는지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글을 보고 어떤 글이 더 이해하기 쉬운지 말해 보자.

- 1. 초등학생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만큼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제공해야 한다.
- 2.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읽기, 쓰기, 셈하기다

그리고 어떤 말들을 더 쉽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

찬동하다→ 찬성하다	인지하다→알다
축적하다→모으다	실증하다→보여주다
순응하다→적응하다	경감시키다→줄이다
소재지→장소	고안하다→만들다
증진하다→늘리다	용이하게→쉽게

#### 4) 불필요한 표현을 버려라.

"힘있는 글은 간결하다. 문장에는 불필요한 단어가 없어야 하며 단락에는 쓸데없는 문장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그림에 불필요한 선이 없어야 하고, 기계에 쓸데없는 부품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간결한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이다.

#### 중복은 불필요하다

단어나 개념을 쓸데없이 반복하지 말자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라는 문장을 한번 보자. 불필요한 중복이 눈에 띈다. 초보자라는 말에 이미 '경험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복된 단어나 구절은 과감히 버려라. 그래도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

#### ▽ 중복표현의 예

옥상 위, 처갓집, 꿈 해몽, 남은 여생, 이름난 명산, 쓰이는 용도, 따뜻한 온정, 날조된 조작극, 서로 상충, 같은 동포

## 02. 일상에서 재미있게 문장력을 높이는 글쓰기 훈련 방법

## 1) 나만의 사전 만들기

보통 사전적 의미라 함은 단어의 정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앰브로스비어스 (1842~1914)의 『악마의 사전』(유소영 역, 정민 미디어, 2000)에 나오는 단어의 설명이다. 어떠한가? 같은 단어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정의할 수 있다.

✔ 국회란 법률을 무효로 하기 위해 화합하는 사람의 집단

✓ 축하란 질투의 사회적 표현

✓ 행복이란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안도감.

정철 카피라이터의 『내 머리 사용법』에 나오는 인생사전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단어들을 정의한다.

♥ 업무 및 안되는 미래형 명사. 처음엔 '꾸다'라는 동사와 붙어 지내지만 '꾸다, 꾸다' 반복하여 주문을 ▼ 점

외우면 어느새 '이루다'라는 동사와 붙어 있다.

✔ 위로 이래로 쳐진 어깨를 위로 올려 주는일, 이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들게 하는 것, 영어로는 up!

<b>√</b> 경력	역경을 반대로 말해 보라.	역경없는 경력은 없다

각자 편견을 깨어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해 보자.

예제) 아래의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추가하여 새롭게 정의해 보자

언어, 영어, 사랑, 가능성, 슬픔, 아르바이트, 이별, 공부, 불만, 행복, 선거, 포기, 결혼, 대통령, 가난, 인생, 습관, 친구, 뉴스, 걱정, 학점, 대학생, 청춘 나만의 사전: 나만의 사전:

## 2) 상상하여 서사하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상'이라는 재료이다. 그리고 이야기는 서사를 통해 전개된다. 서사라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을 서술하는 것이다. 처음과 끝을 먼저 쓰고 중간의 내용을 다양하게 만들며 글쓰기 연습을 해 보자.

아래에 제시된 처음과 끝 상황을 가지고 한 편의 서사문을 만들어 보자.

처음 상황남자와 여자가 커피숍에서 마주 보고 앉아 있다.끝 상황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 남자는 홀로 커피숍에 남았다.

남자와 여자가 커피숍에서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 남자는 홀로 커피숍에 남았다.
3) 묘사하기 묘사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다. 묘사의 목표는 대상을 얼마나 잘 이해시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감나고 생생하게 대상에 대한 인상을 독자에게 전달하느냐 가 중요하다. 때문에 묘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현 능력과 기법의 문제를 넘어서 대상
에 대한 인식, 태도, 가치관과 그것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관점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사람(연인, 친구, 가족, 물건, 행동 등)을 떠올려 보고 그것을 묘사 해 보자.

묘사 대상: (	)	

## 4) 수사법을 사용한 효과적인 진술 방법

수사법을 사용하면 좀 더 다채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수사법을 사용하면 내용이 감각화 되어 인상 깊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A는 B다.
	예) 꽃은 시랑입니다./ 양말도 옷이다. / 기쁨은 햇살
	연습)
은유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법
	예) 생각하는 정수기
	연습)
ololul	
의인법	

	의미가 반대되는 개념을 서로 붙이는 방법
	예) 거북이 달린다./ 반가운 살인자
	연습)
ule lui	
반어법	
	음절이나 어절, 구 단위에 운을 맞추는 기법
	예) 뻔한 인생사, 펀한 xxx / 뜨끈, 후끈, 매끈 / 성큼 다가온 여름, 냉큼 사라진 땀
	면습)
각운 또는 비슷	
한 음절 맞추기	
	1. A가 B인 것처럼 C도 D이다. (A가 B가 아니듯, C도 D가 아니다.)
	예) 최동원이 그저 150km를 던지고 시즌 27승을 거두었던 투수로만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장효조 역시
	그렇게 간단히 설명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연습)
문장틀	
고경 글 이용하기	2. A는 B가 아니라 C이다. (B=상식적이 규정, C=새로운 규정)
0100121	A는 B인데 반해 C는 D이다.
	예) 가수 김장훈은 기부란, 수능이 아니라 검정고시라 정의했다.
	예) 희랍의 서사시는 필멸하는 인간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데 반해, 단테의 서사시는 인간의 의지와
	신의 사랑으로 불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습)

3. A라서 B인게 아니라, B라서 A다.
예) 특별한 날에 와인을 따는 게 아니라, 와인을 따는 날이 특별한 날이다.
연습)

## 03. 에세이 쓰기

## 1) 에세이(Essay)란?

- ■에세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자신의 체험이나 의견, 감상 등을 적은 산문 형식의 글
- 일반적으로 일기 · 서간 · 감상문 · 수상문 · 기행문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글쓰기, 특히 비평적 에세이는 논술이나 비평문까지 포함하기에 그 범위가 무척 넓은 편임

#### • 에세이의 종류

몽테뉴형	베이컨형
- 개인적 수필, 경수필	- 사회적 수필, 중수필
	과학·철학·종교 등 주로 사회적인 관심과 객관적·경구적 (警句的)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 수필'이라고 할 수 있다.

#### • 에세이의 특징

- ① 대부분의 에세이는 1인칭 시점에서 쓴다.
  - : 에세이의 화자가 글 쓰는 자신이며 따라서 에세이의 내용은 고백적이고 자신의 경험과 심리의 표출이 된다.
- ②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야 하는 글이다
- ③ 기교를 부리지 않은 소박한 글이다.
  - : 어떠한 문학적 장치도 없으므로 오히려 감동적일 수 있다. 소박한 일상을 놓치지 않는데서 에세이의 힘이 될수 있다. 하지만 형식성과 합일되지 않을 때 개인의 '넋두리'나 '하소연'에 그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 에세이 쓰기의 원리

#### ① 경험 회상의 원리

에세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되 자신의 경험 그대로를 무원칙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 자아의 인식 속에서 선택되고 조직된 것을 드러낸다. 경험 및 체험을 회고하고 회상하는 과정은 단편적인 체험을 종합화하고 정리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무의미하게 버려질 수 있는 경험에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 ② 의미 발견의 원리

에세이 창작은 단순히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발견 하는 것이다. 글쓴이 주변에 존재하는 평범한 소재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이끌어내고 이것에서 삶의 감동을 느끼는 것이 에세이의 강점이다. 따라서 에세이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가치 있는 경험을 선별하고 그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경험 재구성의 원리

글쓴이는 자신의 체험을 회상하고 특정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경험의 재구성이다. 지나간 경험을 글로 표현할 때 그 당시의 경험대로 완전하게 재현할 수는 없다 경험을 다시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험적 자이와 서술적 자이는 분리된다. 경험적 자이와 서술적 자아 사이에 시간적 거리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반성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거리가 없을 때 서술적 자아의 글쓰기는 일상사를 그대로 쓰기만 하는 잡문으로 전략한다. 따라서 서술적 자아는 경험 내용을 글 속에 무질서하게 나열하여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회고적인 해석을 통해 걸러내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글을 완성해야 한다. 자신을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을 설정하여 에세이를 쓸 때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 ④ 자기 고백의 원리

에세이는 글쓴이의 사실적이고 진실한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고백이 잘 형상화된 글이다. 이때 자기 고백은 자신의 경험 및 체험 중 좋은 면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감정까지도 드러낸다. 이렇게 진실성을 바탕으로 고백함으로써 에세이는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다.

#### ⑤ 자기 성찰의 원리

개인적 체험을 심화하여 구체적인 깨달음에 이를 때 우리는 이를 성찰 이라 한다. 글쓴이가 경험을 회상하고 그 경험 중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이를 자기 고백적으로 서술하고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에세이는 자기 성찰의 글쓰기이다 고백 없는 성찰은 없다 즉 에세이는 글쓴이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로 작용함으로써 자기 성찰에 이르도록 한다. 글쓴이는 에세이 쓰기를 통해 넓고 깊은 자기 내면과 만날 수 있으며 사고를 확장하고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음미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 읽기 자료 1. -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발견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한비야

나는 내 간이 큰 줄 알았다. 7년 동안 생사를 넘나드는 오지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의 긴급 구호 현장을 다니면서 간이 많이 커진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얼마 전 금요일에 받은 전화 한 통에 완전히 간이 콩알만 해졌다. 사연인즉, 정기종합건강진단 결과를 전화로도 통보해 준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담당의사가 면담을 해야겠다는 거였다. "일부러 보자는 걸 보니, 큰 탈이 났음이 분명해." 그 순간부터 나는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온갖 나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 요즘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 얘기가 유난히 많이 들리던데 그게 무슨 징조인 것 같아 불길했다. 지난주에도 후두암으로 죽은 친구오빠 문상을 다녀왔다.

기가 막혔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오래된 버릇, 혼자서 또 다른 나와 말을 주고받는다. '만약 얼마 못 산다고 하면 억울해서 어쩌지.'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여태껏 건강하고 재미있게 산 것에 감사해야지.' '억울하지. 못 다 핀 꽃 한 송이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할 수 없네. 이제는 사는 날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는 수밖에."

그리고는 아예 수첩을 꺼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년 남았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꼭 하고 싶었던 백두대간과 전 세계 6천m급 산들을 올라야지. 종횡무진 다닐 거다. 누워서 죽음을 맞을 수는 절대 없지. 6개월 남았다면 어떻게 할까 긴급구호 현장으로 가야지. 될수록 최전선에. 3개월 남았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장근무 아이디어는 정말 좋다. 산사나이가 고스톱 하다가 죽고 싶을까 산에서 죽고싶을 거다. 전투기 조종사가 사우나 하다가 죽고 싶을까. 전투기 조종하다가 죽고 싶을 거다. 나도 마찬가지다. 죽기는 싫지만 죽어야한다면 나 역시 현장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딱 한 달 남았다면 책을 써야겠다. 전부터 꼭 쓰고 싶었던 '어린이 바람의 딸', 한국이라는 새장에서 나와 세상이라는 넓은 창공으로 날아보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세상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경쟁이나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어울려 살아야 할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더불어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온갖 시나리오를 썼다 지우면서 기나긴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다. 담당의사는 위산과다에 간 기능이 약하니 조심하라며, 전화로 말하면 그냥 흘려들을 것 같아서 직접 만나 당부하는 거란다.

'시한부 인생' 해프닝은 이렇게 싱겁게 끝났지만 덕분에 예상치 않은 수확이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다. 긴급구호활동, 산, 그리고 책을 쓰고 권하는 일. 이게 현재의 내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머리로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저 깊은 무의식 속의 우선순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신기하다. 이 일들을 할 때 내가 가진 어떤 힘도 아끼지 않을 자신이 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질 자신도 있다. 나 좋아서 하는 일인데 세상에도 도움이 되니 다행이다. 이 일말고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고 싶다.

마음 졸이던 그 주말의 긴장이 가시지 않았는지, 어제 저녁 일기를 쓰면서 또 엉뚱한 상상을 했다. 만약 내게 남은 시간이 딱 하루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산에 가서 아름다운 봄 산을 마음 가득 담아 올 거다. 저녁에는 일기장을 정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동안 즐거웠다고 전화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아침 일찍 투표하러 갈 것이다. 거미줄도 모이면 사자를 묶는다고 했다. 거미줄보다 힘없는 내 한 표지만 새로운 역사와 세상을 펴는 데 그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그런 세상을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지 않은가.

#### • 에세이 쓰기의 방법 및 전략

쓰기 전 Pre-writing 쓰기 Writing 쓰기 후 Post-writing

#### (1) 쓰기 전

#### ① 에세이를 쓰는 목적 설정

에세이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뇌리에 더 강하게 남기고 일기 블로그 등 자신의 체험에서 비롯한 깨달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메일, 투고 등을 쓴다. 그 밖에 '이 에세이를 창작함으로 써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에세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이 에세이를 읽고 예상 독자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가' 등의 물음을 통해 자신이 쓰는 에세이의 목적을 구체화할 때 효과적인 에세이 쓰기가 된다.

#### ② 에세이의 독자 설정

에세이는 공감의 글이다 따라서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체험을 위주로 쓸때 자신과 같은 체험을 공유한 적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③ 에세이의 종류 정하기

에세이는 제재나 주제에 따라 서정적 에세이 서사적 에세이 비평적 에세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종류의 특징을 이해한 후 써야 한다.

#### ④ 생각 꺼내기

우선 특별한 자료 없이 머릿속에서 꺼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연상하기 즉 사진첩을 뒤지거나 일기 블로그 등을 다시 읽어보는 방법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자료를 찾는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방법 주위 사람과의 대회를 통해 생각을 꺼내는 방법 등이 있다.

#### ⑤ 생각 조직하기

아무리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해도 그것을 적절하게 조직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응집성 과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생각 묶기를 통해 아이디어를 적절히 배열해야 한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획일적인 틀보다는 자신이 쓴 글의 주제나 조직 방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하는 게 좋다. 예컨대 '다발 짓기'를 통해 생성한 아이디어를 관련 있는 것끼리 묶는 활동이 있는데 이를 통해 글의 뼈대를 만드는 '얼개 짜기'로 나아가야 한다. 얼개 짜기란 형식적인 단계가 아닌 내용의 중복이나 누락을 미리 방지하고 주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에세이 쓰기에서 얼개 짜기는 '서사적인 에세이'와 '설명적인 에세이', '비평적인 에세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서사적인 에세이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구성 공간의 변화에 따른 구성 등장인물에 따른 구성 등으로 나눈다. 설명적인 에세이는 비교 또는 대조적 구성 원인과 결과 구성으로 나누며 비평적인 에세이는 주장과 논거로 구성한다.

#### (2) 쓰기

#### ① 초고 쓰기

초고는 뒤에 고쳐 쓰기를 통해 다시 수정될 글이므로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써야 한다는 강박감을 버려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앞서 생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에 초점을 두어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과 같은 형식적 요소에 크게 집착하지 않도록 하며 서두 본문 결말로 나누어 서술한다. 비교적 단문인 에 세이는 첫인상 인 서두의 비중이 크다 표제로 시작하기 주제를 압축하여 제시하기 분위기나 상황으로 시작하기 인용구로 시작하기 때 장소 날씨 등을 제시하며 시작하기 비유 암시로 시작하기 등의 서두 쓰기 방법이 있다. 에 세이는 결말 부위의 한두 문장에 중심 사상을 농축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공감을 유도하는 마무리 이해나 반성을 촉구하는 마무리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는 마무리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주제의식을 은유 혹은 상징하는 마무리 생략 설의법 마무리 등의 방법으로 결말을 쓴다

#### ② 글다듬기

에세이가 다른 잡문과 구별되는 점은 감상이나 느낌의 나열이 아니라 정제된 글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흔히 '퇴고'라고 하는 글다듬기 과정은 필수이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내용을 훑어 읽기 하되 문법적인 요소보다 내용 위주로 수정하도록 한다. 에세이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경험했음이 아니라 그 경험에 자신만의 특별한 관점과 시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이해와 감상이 얼마만큼 깊이를 지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자신이 설정했던 글의 주제나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고 첨가 삭제 대체 재배열해야 하는 요소가 있으면 간단하게 표시를 하도록 한다.

#### (3) 쓰기 후

#### ① 평가하기

자신이 창작한 글과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글의 내용이나 구성 표현 등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좋은 에세이의 요건을 깨달으며 좋은 글을 쓰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된다. 자신의 글을 평가하는 시간을 주어 자평하기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기 교수의 평가와 학생의 평가를 합하여 우수 에세이를 선정하기 선정한 표본 글을 재평가하기 등을 활용한다.

#### ② 작품화하기

에세이 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글이며 이러한 내면 고백을 글로 발표함으로써 글쓰기 능력은 더욱 향상된다. 학보 교지 등에 게재하기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올리기 개인 혹은 여러 명이 모여 에세이집 만들기, 신문이나 잡지에 투고하기, 정식 출판하기 등을 활용한다.

#### • 에세이 쓰기의 실제

아래 제시하는 에세이는 에세이 쓰기의 원리에 충실한 글이다. 이 글은 무의미하게 버려질 수 있는 경험에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관찰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며 이를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솜씨가 돋보인다.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경험의 재구성 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새로운 인식을 주제화하였다. 또한 진솔한 자기 고백이 잘 형상화된 글이며 이를 통해 자기의 내면과 대면하여 성찰하는 과정이 에세이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낸다. 두 편의 에세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글을 써보도록 하자.



# 활동하기-의미 발견의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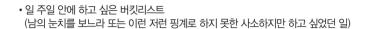
-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에 앞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종이 위에 정리하 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기 때문 에 좀 더 명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 1. 나를 기록하라. 그리고 의미를 부여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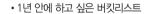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했었던 때는 언제인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을까? 그 경험을 통해 느낀점, 알게 된 점이 있다면? 그 경험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해보자.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인가? 무엇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 경험을 통해 느낀점, 알게 된 점이 있다면? 그 경험에 나만의 의미를 부여해보자.

## 2.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 나의 버킷리스트





• 5년 안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 10년 안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 20년 안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 3. 에세이 쓰기

• 자신이 쓴 버킷리스트를 보며 왜 이런 버킷리스트를 썼는지 생각해 본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나 들여다 봄' 시간 갖기) 성찰의 결과물로 '내가 살고 싶은 하루'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쓴다.

## 내가 살고 싶은 하루

이름:


+

학습 3.

# 말하기 · 듣기



### 3-1 대화

#### 학습목표

- 대화의 중요성과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대화의 기본 원리와 기술을 익혀 실생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 [하위역량]

### 의사소통, 대인관계, 타인 공감/대화하기

한국 사람들은 말하는 기술이 서툴다. 그 이유는 서양은 고대로부터 말 중심의 수사학이 발달해 왔는데 비해 동양은 쓰기 중심의 서체가 발달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생활에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현대는 '정착에서 유목 집단에서 개인 통합에서 분화'라는 생활양식으로 변화되어 있어 소통의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기존의 가족 중심의 혈연 사회에서 가족 해체로인한 타인과의 관계 중심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말을 잘 주고받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남기 힘들다

### 1) 대화의 중요성

대화란 나와 상대방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행위로 말하기와 듣기로 이뤄지는 행위의 연속체이다. 단순히 상대방과 말만 주고받으면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가짐을 지니고 좋은 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등 긍정적이고 필요한 말을 주고받을 때 진정한 대화가 이뤄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상처를 주는 말 비난하는 말 등 부정적인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상호간의 신뢰와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말한 당사자의 이미지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받아 심리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말은 신중히 해

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 자신은 물론 내 인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1) 말은 인격을 재는 바로미터

대학생은 초등 고등학생이 아니다. 그런 만큼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때를 쓰거나 우기거나 협박하거나 욕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대학생은 지성인이고 교양인인 데다가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생활해 나갈 사람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답게 대학생에 어울리는 말을 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 종업원이나 배달원 그리고 처음 보는나이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하거나 비하 혹은 무시하는 말을 할 경우 그 사람의 인격은 심히의심될 만하다. 따라서 직위가 낮거나 하위 종사자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의취약한 인격을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격이 높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2) 말실수는 관계유지의 적

인간관계는 두 사람이 얇은 유리를 맞들고 있는 것과 같아서 잘 관리하면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깨져 버려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인간관계를 새로 맺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인간관계를 끝내는 것은 순식간이다. 따라서 말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인사를 제때 건네는 것이다. 반드시 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상황에 맞는 가벼운 인사말이면 충분하다.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이제 시원해졌습니다. 그죠?" 등 일상생활에서 이뤄지는 인사말이면 그만이다. 그러나 너무나 솔직하게 인사말을 건네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찌셨어요?", "오늘 얼굴이 왜 이래요?"와 같이 부정적인 인사말을 건네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외에도 각 상황에 맞게 '의례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응대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 (3)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불편한 상황에서 대화가 이뤄질 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상대방에게 독이되는 표현으로 말을 건넨다. 그로 인해 상대방도 불쾌하게 되고 둘 사이의 감정도 나빠져 말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불만을 얘기하더라도 좋게 말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대화가 상대방과의 공감과 소통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각인하고 아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법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것과 관련해 한 가지 쉽게 바꿀 수 있는 표현에는 우리가자주 쓰고 있는 호칭이 있다. 직장 내에서는 언니 형님과 같은 친족 호칭어를 쓰는 것보다 사람의 이름이나 성 뒤에 직급을 붙이거나 선배님 씨와 같이 직위의 상하관계에 따라 적절하게골라 쓰면 된다.

#### 2) 말하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인간의 표현 욕구는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 본의 아니게 자신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상황도 많고 말 한 마디로 인해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심지어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다. 그만큼 말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러한 속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쓸 데 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남 욕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하기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 +알아 두기

■말 잘 듣는 사람이 말하기의 고수다!

'말 잘하는 사람 = 말 잘 듣는 사람'

: 눈으로 듣기, 귀로 듣기

- ■말 많이 하는 사람
- 1. 의심을 받는다.
- 2. 가볍게 보인다.
- 3 따돌림을 받는다
- 4. 시간과 체력낭비다.
- 5. 실언의 원인이 된다.
- 6. 상대에게 본심을 들킨다.

#### (1) 언어로 말하기

#### ① 상황에 맞게 말하기

대화에서는 상황이라는 요소가 개입된다. 만일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대기실에 있는 신부에게 "어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듯이 눈치 있게 상황에 맞는 말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②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하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보다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옷 괜찮지, 안 괜찮아?"라고 두 번 반복해서 묻는다면 "어 그래, 괜찮네"라는 말을 그냥 해주면 된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 살 많이 쪘지?"라고 묻는다면 "아니 모르겠는데?"라고 해주는 게 좋다. 이것을 상대방은 듣고 싶어 하니까 말이다.

#### ③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

인간관계는 상호성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항상 상대방이 뭘 의도하고 말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안테나를 세우는 게 좋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는 나와 너 둘만의 관계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 구성원간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고 싶지 않다고 "참견하지마! 너나 잘 하세요, 나가 주세요."라며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기분대로 말을 건넨다면 관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알아 두기

#### 말하기 싫게 만드는 말 베스트 10

- 1. 네가 뭘 몰라서 그래
- 2. 설마 언제 어디서 누가 그랬는데
- 3. 내가 그건 잘 알아 내 친한 친구 아버지가 그쪽 권위자야
- 4. 에이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지
- 5. 몰라 몰라 어쨌든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 6. 그건 그렇고 다른 건 어떻게 되고 있지
- 7. 글쎄 그런가보지 머
- 8. 거봐 넌 그게 문제야
- 9.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 10. 치 웃기고 있네

#### (2) 준언어로 말하기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의 감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다르다. 화가 나면 목소리가 격앙되고 커지며 억양도 높아지고 빨라진다. 게다가 목소리의 톤도 냉랭하거나 분노가 담긴 톤으로 재현된다.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목소리 톤이 가볍고 활기차며 억양도 화려하게 변화를 보인다. 이처럼 꼭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목소리 톤 강세 빠르기 성량의 크기 억양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쾌한 상황일 때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준언어로 말을 한다면 대화자 상호간에 냉랭한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3) 비언어로 말하기

말로는 화 안 났다고 하고서는 인상이나 말투는 화가 나 있다면 어느 것이 진짜일까? 정답은 '화났다'이다. 말은 이성적으로 컨트롤될 수 있어도 비언어적인 부분은 숨길 수 없도록 인간은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눈빛, 표정, 제스처, 동작 거리 등을 고려하여 상대의 마음을 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말하는 사람도 웃는 얼굴로 대화하려고 애써야 하며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을 해야 한다.

#### +알아 두기

####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언어적 메시지

- 1.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한다.
- 2. 말을 할 때 혀를 내밀거나 혀로 입술을 핥는다.
- 3. 손을 쥐고 비틀거나 비비면서 말한다
- 4. 몸을 흔든다.
- 5. 무섭고 딱딱한 표정을 짓는다.
- 6. 시선이 허공이나 바닥을 쳐다본다.
- 7. 앉아 있으면서 발로 바닥을 친다.
- 8.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버티고 서서 꼬기 떨기 말한다.
- 9. 허리를 뒤로 뻣뻣하게 세워 상체를 뒤로 기댄다.
- 10. 턱을 괴고 말하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한다.
- 11.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말한다.
- 12. 손톱을 깨물면서 말한다.

#### 3) 듣기

얼굴에서 눈 귀 콧구멍 눈썹은 두개인데 왜 입은 하나일까? 그것은 아마도 말을 많이 하기

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담은 자연의 이치가 아닐까? 그만큼 의사소통에서 말하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하다 남 얘기를 전혀 듣지 않거나 자신의 말만 너무 많이 한다든가 반대로 말이 너무 없으면 사람들과 단절된다. 그러므로 듣기에 대한 기술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

#### (1) 듣기의 과정

#### ① 들리기

들리기는 그야말로 히어링으로 말소리의 음파를 귀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말한다. 예컨대소리가 들려오는 곳을 확인한다든지 말소리와 말소리가 아닌 것을 구분하고 말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으로 그 말소리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 ② 주의

귀에 들어온 말은 생리학적 구조상 초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듣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말을 통과시킬지 차단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주의를 통해 상대방의한 말 가운데 우선적으로 높은 정보에는 귀를 기울이고 우선순위가 낮은 정보는 무시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주의의 단계에서 칵테일파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방에서 일반적인 소음을 하면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자기의 이름이 들리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현상 즉 특별히 유의미한 어떤 것을 감지하면 주의는 그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확보하려면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 즉 공감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 주어야 귀를 기울이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③ 지각

상대방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자료를 수용하며 입력된 자료를 평가하는 활동이 일어나는데 이 단계가 바로 지각단계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지각 방어현상이라는 심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어떤 말을 잘 든지 않으려는 현상으로 자신의 믿음과 상반되는 말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해서 생기는 것으로 예를 들어 술집에서 상대방의 얘기가 재미없을 때 옆 테이블의 재미있는 얘기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일치하지 않을 때 건성으로 흘러듣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반응을

보일 때에는 화제를 돌리거나 듣고 싶어 하는 말로 관심을 집중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④ 의미부여

의미부여 단계는 메시지를 수용하고 평가하는 주의 단계와 동시에 자신의 머릿속에 정립된 사고나 가치관 등과 결부시켜 메시지의 의미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다 즉 스키마의 활동과정이 일어나는 단계를 말한다.

#### ⑤ 반응

주어진 메시지에 대한 스키마 활동이 일어나면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할 것을 고르고 기억할 것을 시각화하고 정보를 연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대해 언어 준언어 비언어로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반응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 와!, 저런, 아이구, 정말" 등과 같이 '맞장구치기', "그래서, 그리고, 어째서, 왜 등의 '촉발질문 던지기', "맞습니까?"와 같은 확인질문 던지기 그리고 상대방의 메시지에 대한 자신의생각 말하기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의 단계에서도 '함구효과'라는 심리적 현상이 때론 발생하는데 개인적인 무능이나 약점을 나타낼 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 속에 나타나 있는 문제들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에도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지않으려는 데서 기인한 현상으로 나쁜 소식은 늦게 전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2) 바람직한 듣기

#### ① 듣기 자세

-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절대로 끊지 않는다.
-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인다.
- 듣고 있다는 표시로 간단하게 말을 한다. (아~ 그래 그랬구나, 저런)
-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표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전달하려고 하는 깊은 마음까지 이 해하려고 노력하다.
- 상대방이 말을 마친 후에 들은 것을 되새겨 본다. (그러니까 네 말은 ~라는 것이구나)

#### ② 듣기 태도

- 상대가 하려는 말을 듣고 싶어 해야 한다.
- 상대의 특정한 문제에 관해 진정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야 한다.

- 상대의 생각이 어떤 것이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상대가 자기감정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누르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 ③ 공감적 경청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처한 상황이나 느낌 또는 감정을 느껴본 다음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해 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 져주는 행위이다. 이에는 적극적 경청과 소극적 경청이 있는데 우선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는 표현을 통해 듣는 것으로 음성 어조 자세 눈 움직임 등으로 공감적 감정 표현도 함께 이뤄지는 듣기의 방법이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난 것 같구나, 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매우 당황한 것 같구나, 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되는 것 같구나"와 같이 상대방의 메시지에 담긴 말이나 행동의 사실 부분을 언급하고 나서 상대방의 심리적상태를 이해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적극적 경청에 해당된다. 그리고 소극적 경청 은 맞장구치기 눈 마주치기 고개 끄덕이기 미소짓기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과 마음을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친밀감을 확인하고 유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 +더 알아보기

최고의 듣기 기법, 경청!

L: Listen 귀담아 들어주기

Ing 중간에 말 끊지 않기

**S**: Smile 웃으며 화답하기

T: Touch 마음으로 공감하기

E : Eye Contact 눈 맞추며 대화하기

N: Nodding 고개 끄덕이기



# 활동하기-적극적 경청

■ 아래의 짧은 대화문에서 B의 대답은 적극적인 경청이 아니다. 적극적인 경청이 되도록 고쳐보자.

A:에이, 내가 싫어하는 애랑 같은 조가 되어서 너무 짜증난다. 걔는 뭐든 하기 싫대.

B: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니가 참는 수밖에.

+

학습 4.

# 토론하기



4-1

### 토론 방법의 이해

#### 학습목표

-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의 관계를 이해한다.
- 토론의 준비과정과 실제 토론 방법을 익힐 수 있다.

[하위역량]

의사소통, 대인관계, 타인 공감/토론의 방법과 실제

### 01.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

'말을 잘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한다. 다만 순발력 있고, 재치 있고, 진행을 잘하는 MC나 아나운서들의 말하기 능력에는 인문학 공부와는 별개로 행동적 연습과 교정과 같은 다른 방면의 연습이 전제되어야 한다. 모든 면은 아니더라도 말하기 능력 역시 인문학 공부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심각한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상대방과 설전을 벌이거나, 대중 연설을 잘하는 능력에 인문학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토론과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에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인문학적 지식과 상식,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문학의 한 분야인 '수사학'도 스피치 능력과 관련이 있다. 수사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토론과 웅변을 잘하기 위한 말의 기술로 개발되었고, 현대에도 독자적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문학 공부가 말하기 능력을 향상사카는 중점적인 요인은 스피치 기술이나 수사적 기법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을 바탕에 둔 '설득력' 그리고 '어휘력'이다. 즉, 인문학이 말하는 능력을 높이는 원리는 글을 잘 쓰게 만드는 원리와 같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토론에서 이기는 능력, 그리고 상황에 따른 적절하고 고급스러운 어휘 구사가 바로 인문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이다.

### 02. 비판적 사고와 말하기의 실제-토론하기

토론은 두 사람 이상의 토론자가 특별한 논제를 두고 정해진 형식을 따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하는 말하기로 현 사회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다. 토론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과연 토론이란 무엇인지 토론의 의의 토론의 유형 토론의 원칙 토론의 방법과 유의점 그리고 토론의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토론을 대비해 보자.

#### 가 토론이란?

#### (1) 토론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토론은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대화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때로는 '토의(討議)'의 의미로 때로는 논쟁(論諍)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에서 정의하는 엄밀한 의미의 토론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에서의 토론은 다음과 같이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

토론은 두 사람 이상의 토론자가 특별한 논제를 두고 정해진 형식을 따라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개진하는 말하기이다. 토론은 상호 대립적인 말하기라는 측면에서 상호협력적인 토 의와 다르고 엄격한 규칙 아래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말하기라는 측 면에서 규칙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논쟁과 다르다.

#### (2) 토론의 의의

#### ① 자료조사능력 향상

토론을 하게 되면 자료조사능력이 향상된다. 논제가 주어지면 토론자들은 토론에 임하기위해 자료조사를 해야만 한다. 즉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논제에 적합한 자료를 찾고 정확성 참신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를 평가 분석하고 그 자료를 논거 카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다 보면 자료 찾기, 자료 분석, 자

료정리와 같은 자료조사능력이 향상된다.

#### ② 듣기능력 향상

토론을 하게 되면 듣기능력도 향상된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야기를 독점하려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동문서 답을 하는 이들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말허리를 자르고 들어오는 이들도 있다. 모두들 듣기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런데 토론 순서는 남의 말을 경청해야만 하는 시간이 있다. 이때 내가 끼어들면 토론 규칙을 어기게 된다. 또 들을 때는 경청하면서 상대방 발언의 주장과 근거를 메모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순서 때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반박하며 확인질문이나 반론을 무리 없이 펼칠 수 있다. 이러한 경청과정을 통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토론에서 배양하려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상대방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궁지로 몰아넣는 비방이나 싸움닭처럼 사사건건 상대방에 시비를 거는 행위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능력은 문제해결을 위해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근거를 가지고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배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③ 스피치 능력 향상

토론을 하게 되면 스피치 능력이 향상된다.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언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다. 어법에 맞는 말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사용 능력도 향상된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 음색 그리고 억양의 고조와 강약을 조절하여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게 받아들일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도 익히게 된다. 나아가 상대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예의 있게 말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 ④ 원만한 갈등해결능력 배양

토론은 의견의 불일치나 대립이 일어나는 갈등의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갈등은 종종 폭력사태나 권위에 기대어 누가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양상으로 귀결되곤 한다. 이 지점에서 토론의 방법을 택하면 물리적인 폭력이나 강압적인 태도에 빠지지 않고 갈등을 평 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토론자는 토론을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 ⑤ 유연성과 주체성 배양

토론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방법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흔히 대화의 단절이나 고성이 오가는 언쟁으로 귀결되기 쉽다. 토론은 토론자 자신의 의견이 언제라도 비판당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주며 상대방의 비판에 정색을 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조리 있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렇게 토론은 비판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준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견해와 생각 가치와 믿음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다원화된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토론은 수동적인 방관자로 있던 이들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꾼다. 상대팀의 말을 경청하고 여기에 맞서 자기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방법을 습득한 이들은 일상생활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⑥ 타인에 대한 이해력 증진

토론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의 주장과 근거를 경청하게끔 짜여 있다. 그리고 토론 자는 교육토론에서 나의 소신과 상반되는 입장을 맡아 토론에 임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타인이 왜 저렇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를 타인의 입장 역시 설득력 있는 입장임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태도로 타인의 입장이나 의견을 이해하는 관용적 태도가 싹트게 된다. 이를 통해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태도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토론은 타인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는 방법 이를 바탕으로 어떤 사안에 대하여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안목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나 토론의 핵심 과정

토론의 핵심과정은 입론, 확인질문, 반론, 최종발언 네 과정으로 압축된다. 이 과정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다양한 형식의 토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네 과정을 잘 터득하면 어떤 종류의 토론이든 잘 수행해낼 수 있다.

#### (1) 입론

입론(立論)은 논제에 대해 자기 팀의 입장을 담은 논점 주장을 펼치는 과정이다. 입론은 이후의 과정을 전개시키는 토대이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논점을 잘 세워야 한

다. 입론의 방법과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 논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하는 이유나 논제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말한다.

 - 찬성 팀은 이 논제가 토론을 해야 할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함으로써 논제가 토론할 가치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즉 논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조치 를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폐해를 낳게 되므로 문제에 즉각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 • 핵심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핵심용어의 정의는 토론을 겉돌지 않게 잡아준다. 핵심용어의 정의는 자기 팀의 입장이나 논점을 받쳐주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 토론에서 찬성 팀이 먼저 발언하기 때문에 개념 정의 역시 찬성 팀이 먼저 내린다. 만약 반대 팀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대 팀은 용어의 개념을 재정의 할 수 있다.

#### • 논점을 3~4개 항목으로 정리한다

- 논점이 너무 많으면 내용을 기억하기도 어렵고 산만할 뿐 아니라 중복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논점은 3~4개 항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 논제에 대한 주장을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넘버링을 하면서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말한 뒤 각 논점을 지지해주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 가장 핵심 되는 논점부터 먼저 제시한다.

#### • 기대효과를 열거한다.

- 자기 팀의 주장대로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기대효과는 청 중들에게 자기 팀 입장의 타당성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 (2) 확인질문

확인질문은 입론을 마친 토론자에게 상대팀 토론자가 말한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토론자들이 각자 자신의 주장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 CEDA식 토론, 칼 포퍼식 토론에서 확인질문을 도입하게 되었다. 상대팀이 말한 바를 조사한다고 하여 교차조사 상호질문[심문]이라고도 하는데 확인질문이라는 용어가 쉽고 그 의미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확인질문의 방법과 유의점을 질문자와 응답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같다.

#### ① 질문자

- 확인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대팀의 입론을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질문할 거리를 메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팀의 논점이나 논거의 허점을 찾아내어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하여 다음 단계인 반론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 상대팀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한다.
- 발언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팀을 반박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상대팀의 입론을 듣자마자 그것을 분석해서 바로 확인 질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평소 순발력 있는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 질문자는 상대팀에게 예의 있는 태도로 질문해 야 한다. 확인질문에서는 상대팀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태도나 인신공격적인 발언보다는 재치와 순발력을 발휘하여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잘 유도하는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 상대팀이 발언한 내용을 모두 검토하려 하지 말고 상대팀이 제시한 논점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나 논리 적 허점에 대해 질문한다. 논점을 뒷받침하는 논거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한다. 자료를 지나치게 자의적 으로 해석한다든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사례를 전체인 양 말하지는 않는지 주장은 있되 근거가 분명 하지 않은지 등을 질문한다.
- 상대팀 토론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질문한다. 특히 초보 토론자들은 자료나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점을 파고드는 질문을 한다.
- 짜임새 있게 단계별로 질문한다.
- 답변이 길어지는 개방형 질문을 피한다.
- 자료나 사실 확인 등은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단답형의 질문이 좋지만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응답자가 '예/아니오'로 대답할 것을 강권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상대가 짧게 답할 수 있도 록 질문을 미리 개발하는 것이 좋다.

#### ② 응답자

- 응답자는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답할 것이 아니라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논지와 잘 연관시켜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응답자는 꼭 '예' 혹은 '아니오'로 짧게 대답할 필요는 없다. 응답자는 자신의 응답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의 형태로 답할 수 있다.
- 응답자는 모호하거나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질문자에게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는 답을 모를 때는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 (3) 반론

반론은 상대팀 주장의 허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왜 잘못되었고 어떤 점이 오류가 있는지를 밝히는 부분이다. 토론은 서로 다른 입장을 전제로 대립된 의견을 논의하는 말하기이므로 반론은 토론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에 해당한다. 반론의 방법과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상대팀이 내세운 논점이 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토한다.
- 상대팀 근거의 신뢰도와 타당성 을 검토한다.
  - 상대팀 논점을 지지하는 논거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반박할 점을 발견하면 왜 반박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밝혀야 한다.
- 토론에서는 상대팀이 제시한 논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거나 또는 그에 대해 자기팀의 입장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논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상대팀이 제시한 논점을 조목조목 다 반박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반박의 내용도 부실해져서 허술한 반론이 되기 쉽다. 이는 다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 우선, 중요한 논점부터 집중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다. 반론이 두 번 있는 토론의 경우 첫 반론에서는 상대팀의 논점 중 가장 취약한 점을 공략하고 두 번째 반론에서는 첫 반론에서 빠진 내용을 반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은 토론 이전에 작성된다. 그러나 그 외의 나머지 순서는 미리 준비했던 자료를 읽어갈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참조하되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반론 역시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행해져야 한다.

#### (4) 최종발언

최종발언은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고 토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청중들에게 다시 한 번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단계에 해당한다. 최종발언의 방법과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 논제에 대한 팀의 입장과 논점 상대팀의 오류나 허점을 간략히 밝힌다.
- 상대팀의 반박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에 대한 팀의 입장을 밝힌다.
- 자기팀이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상대팀이 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를 재확인하여 듣는 이에게 각인시킨다.
- 자기팀의 주장이 상대팀의 주장을 압도하는 이유 자기팀의 논점대로 하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점등을 청중들에게 어필한다.
- 토론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비유나 일화 등을 활용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것도 좋다.

#### 다. 토론의 준비

토론의 준비 과정에는 논제 분석, 자료 조사, 토론 개요표 작성이 있다. 실전 토론에 자신 감 있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잘 준비해야 한다.

#### (1) 논제분석

논제는 토론의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도록 토론거리를 잘 다듬은 문장을 의미한다. 논제는 '~은 ~이다', '~는 ~해야 한다.'와 같이 주어와 술어가 갖추어진 문장으로 제시해야 한다. 토론자들은 이 문장에 대해 반드시 '예'(찬성팀) 또는 '아니오'(반대팀)로 답을 해야 한다. 논제분석에서는 먼저 논제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토론에서 어떤 입론과 반론을 택할 것인지 확실해진다. 한상철(2006)의 견해를 바탕으로 논제 분석 방법 네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관된 다른 문제의 해결책으로 논제가 제시된 것인지 살핀다.

예를 들어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제는 '한국인의 흡연율을 낮추어야 한다. 흡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라는 해결책이 한국인의 높은 흡연율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이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

#### ② 논제에 언급된 주요개념의 상위개념이나 하위개념이 있는지 살핀다.

'법인의 정치자금기부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논제에서 핵심용어인 '정치자금기부'라는 유 (類) 개념 속에는 현행 합법화되어 있는 '개인의 정치자금기부'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법 인의 정치자금기부'라는 종(種) 개념이 있다. 위의 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라 는 행위는 동일한데 왜 행위 주체에 따라 회사를 포함한 법인의 정치자금기부는 불법으로 간 주하고 개인의 정치자금기부는 합법으로 간주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야 한다.

#### ③ 논제가 실행되기 위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 살핀다.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야 한다.'와 같은 논제는 이미 고교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폐지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로 자립형 사립고교와 같은 특수학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를 토론할 때는 왜 고교 평준화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해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 ④ 논제가 내포하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 살핀다.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의 경우 찬성팀은 정보 보호나 표현의 자유와 같이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대팀은 대개 인터넷 소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따라서 찬성팀은 사용자의 권리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반대팀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설명하면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2) 자료조사

#### ① 자료 찾기와 자료평가

자료 찾기에는 크게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현재는 인터넷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법보다는 온라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본 후 인터넷 상에서 자료화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것들을 오프라인 상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설문조사나 인터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료 조사가 끝나면 자료평가에 들어간다. 자료는 정확성, 참신성, 신뢰성이라는 평가기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도록 한다.

#### ② 자료정리

자료평가까지 끝났다면 이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남았다 이때 논거 카드를 이용하면 토론에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논거 카드는 조사한 자료를 메모 카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말한다. 논거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토론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빨리 찾아내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아낸 자료를 정말 중요한 시점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논제 분석을 잘하고 아무리 열심히 조사했다하더라도 자료는 한갓 종잇장에 지나지 않게 된다.

논거 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알아보기 쉽고 정확하게 기입한다.
- 토론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손에 쥐고 보기 적당한 크기로 만든다.
- 논점별로 카드 색을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한다.

- 한 장의 카드에 하나의 논거가 들어가도록 정리한다. 카드를 절약하기 위해 한 장에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정리하게 되면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된다.
- 입론에서 주장할 논점의 근거자료들을 정리하고 반론에서 반박할 근거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 (3) 토론 개요표 작성

토론 개요표는 토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예측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토론 개요표를 작성하면 토론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안목을 키우고 토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며 상대팀의 반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토론 개요표에는 찬반의 논점과 논거 예상되는 반론, 반론에 대한 대책 등을 기록한다. 그리고 각 논점의 논거에 대해서는 논거 카드에 상세히 정리한다. 하여 실제 토론에서는 토론 개요표와 논거 카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활동하기-토론하기

■ 다음에 제시되는 주제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빈칸을 구성해 보시오.

#### 주제: SNS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는 최근 페 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학문 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SNS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역사와 같이 할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현대 적 SNS는 1990년대 이후 월드와이드웹 발전의 산물이다. 신상 정보의 공개, 관계망의 구축과 공개, 의견 이나 정보의 게시, 모바일 지원 등의 기능을 갖는 SNS는 사회적 파급력만큼 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나의 주장	SNS를 통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져 인간관계가 풍요로워 진다.
상대방의 주장	
나의 반박	
상대방의 주장	
나의 반박	

## 토론의 실제

#### 하습목표

• 실제 토론을 통해 상대방과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 [하위역량]

### 의사소통, 대인관계, 타인 공감/토론의 실제



# **■ 잘 활동하기 –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인가?**



발제: [정의란 무엇인가] p 48~5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인가?

사례: 아프가니스탄의 염소 목동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 부대 실(SEAL) 소속의 마커스 루트렐(Marcus Luttrell) 하사관 및 부대원 세 명이 오사 마 빈 라덴의 측근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 파키스탄 국경 인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은밀히 경찰 활동에 나섰 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들이 찾는 인물은 140~150명의 중무장 세력을 지휘하면서 험한 산악 지역의 어느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산등성이에 이들 정찰 팀이 자리를 잡은 직후, 아프가니스탄 농부 두 명이 약 100마리의 염소 를 몰고 나타났다. 그들은 열네 살가량의 남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있었다. 무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군은 이

들에게 총을 겨누고, 바닥에 앉으라고 한 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다. 이 염소 목동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으로 보였기에 놓아주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미군의 소재를 탈레반에 알려 줄 위험이 있었다.

네 명의 병사는 몇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했다. 밧줄이 없어서 이들을 묶어 놓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들을 죽이든가 풀어 주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한 부대원은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국경 너머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군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저들을 놓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루트렐은 망설였다.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중에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우리는 그들을 풀어 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또 다른 마음이 깊은 곳으로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무장하지 않은 저들을 냉정하게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줄곧 속삭였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마음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루트렐은 양심상 염소 목동들을 죽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그들을 풀어 주자는 쪽의 손을 들어 줬다(세 명의 휘하병사 중 한 명은 기권했다).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 목동들을 풀어 준 지 한 시간 반쯤 지나자, 네 명의 병사는 AK-47과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80~100명의 탈레반 병사에게 포위되었다. 곧이어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며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을 구출하러 온 미군 헬기 한 대까지 격추당하는 바람에 거기에 타고 있던 군인 열여섯 명 모두 목숨을 잃었다.

루트렐은 중상을 입고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 뒤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는 11킬로미터를 기다시피 하여 파슈툰 마을로 갔고, 탈레반의 눈에 띄지 않게 마을 사람들이 보호해 준 덕분에 마침내 구출될 수 있었다.

당시를 회상하던 루트렐은 염소 목동들을 죽이지 않는 쪽에 표를 던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지금껏 내가 내린 가장 바보 같고, 남부 촌뜨기다운 멍청한 결정이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담은 책에서 이렇게 썼다.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게 틀림없다. 우리에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내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셈이다. (······) 적어도 지금,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렇다. (······) 결정적인 표는 내가 던졌고, 그 일은 내가 동부 텍사스 묘지에 문 힐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들이 처한 딜레마가 그토록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염소 목동들을 풀어 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목동들은 그저 가던 길을 갈까? 아니면 탈레반에게 갈까? 하지만 그들을 풀어 주면 참 담한 전투가 벌어져, 같이 있던 전우들을 포함해 총 19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게 되며, 자신도 부상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다른 결정을 했을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된	관으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가
--	--------	-------	------	---------	-------	-----	-----	------

■ 당신과 같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주장
■ 당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주장
■ 생각 정리



# ● ■ ◎ 활동하기 –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란



발제: [정의란 무엇인가] p 251~253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란: 권리 vs 자격

사례: 셰릴 홉우드 사례, 인종별 우대 정책은 권리를 침해하는가.

셰릴 홉우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는 돈을 벌어 가며, 고등학교 및 캐 릴포니아 주 대학교를 다녔다. 이후 텍사스에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텍사스 법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냈다. 학업 평균 성적이 3.8점이며. 입학 시험도 꽤 잘 보았지만. 결국 떨어지고 말았다.

합격자 중에는 그녀보다 대학 성적과 입합 시험 점수가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있었다. 그 대학 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홉우드는 자신이 차별에 희 생되었다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은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텍사스 법학대학원의 사명 중 하나라고 답했다. 법 집행에 모 든 집단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으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텍사스 주에 는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40%에 이르지만, 법조계에서 이들의 비율은 훨씬 적다. 소수 집 단 응시자에게 낮은 합격 지준을 정해 두었지만. 그들 모두 학업 수행 능력이 있으며, 거의 모두 무사히 졸 업했다고 밝혔다.

■ 여러분은 소수 집단우대 정책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가. (근거 제시)

■ 당신과 같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주장	
■ 당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주장	
■ 생각 정리	

<ul><li>■ 자유롭게 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해 보고 토론일지를 작성해</li></ul>
보자.

4-3

## 독서 토론의 실제

#### 학습목표

• 독서토론 방법을 이해하고 독서토론을 통해 사고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다.

#### [하위역량]

의사소통, 대인관계, 타인 공감/독서토론의 실제

### 01. 우리는 왜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할까?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1561~1626)〉

11

독사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고 토론은 부드러운 인간을 만들다, 돈을 정확한 인간을 만든다.

11

책은 읽는 사람에게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며,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스함을 지닐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자체로 참된 벗과 친절한 충고자를 만나게 되며 유쾌한 반려자와 충실한 위안자의 결핍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책이 보여주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연관 짓고

비교하며 토론하는 활동은 고정된 틀을 깨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 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고 사고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문·이과로 나뉘어 공부해 왔다. 대학 진학 후에도 각자의 전공에 몰두한다. 하지만 각자 분야에서만 몰두해서는 '통섭의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 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사고체계를 공부하는 철학자라면 최소한 뇌 작동 방식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인공지능이 대두되는 미래에는 더욱 그러하다. 각자의 분야에만 몰두해서는 새로운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다양한 분야가 한데 모여 혁신이 이루어지는 4차 혁명의 시대에는 '스펙'이 아닌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그 소양을 갖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독서 토론인 것이다.

### 02. 독서토론의 목표

독서 토론은 독자가 독서한 내용에 대하여 동료나 독서지도 전문가(및 독서 교사)와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깊고 다양한 의미의 이해에 이르도록 하는 한 방법이다. 결국 독서 토론은 토론하는 가운데 의미의 공유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독서교육이 목표로 하는 의미 구성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는 활동이다. 이는 화법 교육으로서의 토론 활동과는 그 결이 다소 다르다.

일반적으로 화법 교육에서 말하는 토론은 논제에 대하여 긍정 측과 부정 측이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옮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에 비해 토의는 하나의 문제를 공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찾는 동안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토의가 잘 이루어지려면 토의의 규칙을 지키면서도 참가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과 토의의 개념을 구분해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독서 토론은 debate의 의미보다는 discussion의 의미에 보다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서토론은 구성원들이 독서 과정에서 생긴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 얻기 위해 서로 다른 관점들을 교환하고 검토하여.

논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나 평가, 판단 등을 이끌어내는 역동적인 활동이다. 즉, 독서 토론은 구성원들이 동일한 책을 읽고 독자의 관점이나 가치관에 따라 이해한 책의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여 여러 사람이 논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찬반으로 분명히 대립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에 실제 현장 교육에서는 독서 토의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독서 토론을 통한 목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독서토론을 통해 이해 능력과 공동체의식 및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독서토론을 통한 의견 교류활동이 독서이해능력의 향상과 공동체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독서토론을 통해 의사표현능력과 사고력 및 논리력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독서토론을 통한 독단적 사고 극복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독서토론을 통해 양서 선택과 탐구 능력 향상시킨다.

이것은 독서 토론을 통한 과정 중심 학습활동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03. 독서토론의 방법

한 사람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대화와 토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종과 더불어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기로 정평이 난 '정조'는 토론과 독서는 '수레의 바퀴나 새의 날개와 같아서 한 가지만 버려도 학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좋은 책을 읽는 것만큼 함께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대로 정독하는 것이 독서토론의 기본이다.

독서 토론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수업 전에 학생들이 책을 읽고 참여하게 것

이다. 독서 토론은 말 그대로 책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 책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한다. 읽었지만 아무 것도 기억할 수 없다면 책을 읽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책의 기본적인 내용 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책을 읽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 책을 읽고 스스로 질문하자.

책을 읽을 때에는 줄거리뿐만 아니라 가치와 의지를 물으며 읽는 것이 좋다. 독서토론은 기본적으로 책의 내용을 토대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생각을 본격적으로 키워 주기 위해서는 사실을 묻는 질문만 해서는 안 된다. 가치와 의지를 묻는 질문을 해야 한다. 가치는 책을 읽고 난 후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며, 의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을 메모하여 독서 후 내용을 찾아보거나 토론을 통해 의견을 들어 들어보면 좋다.

단계	질문의 방향	질문
1	•흥미를 지속시키며 주제에 다가가는 질문	- 이야기가 관심을 보이는 부분과 주제를 연결시켜 질문하기
2	•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질문	주제를 뒷받침하는 단서를 포착해 질문하기
3	•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는 질문	비유와 상징을 차아 질문하기
4	•자신과 외부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질문	자신을 대입해 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 지점에서 질문하기
5	• 개인의 태도와 행동/객관적으로 보기	<ul><li>책 속의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 살펴보기</li><li>인물의 입장에도 서 보고 주변인의 시선으로도 생각해 보기</li></ul>
6	• 가치판단의 기준 찾기	<ul> <li>진실, 사랑, 용기, 공동체, 배려, 나눔, 행복, 양심, 존엄, 인류애, 생명, 책임과 의무 등 가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 포착하기</li> <li>찾아낸 가치에 대한 생각 나누기</li> </ul>
7	• 사회와 정의 살펴보기	사회현상을 비추는 장면 찾아보기 - 실제로 일어난 일들과 연결 시켜 보기



# ■ 활동하기 – 독서토론 연습: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씨

####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글 다니카와 슈운타로, 국제앰네스티

그림 이세 하데코 | 역자 김황 | 천개의바람

회사에서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때로는 친구들 을 만나 즐거운 시간도 보냅니다. 시란 씨는 그런 평범한 젊은이였지요.

시란씨는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여 티비를 켭니다. 티비 속에는 먼 나라. 전쟁 탓에 삐쩍 마른 어린이 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세상에 저런 일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하며 채널을 돌립니다. 집 우체통에는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풀려나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가 와 있습니다. 만 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 상관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됩니다. 평범하고 평안했던 일상은 철저히 파괴되지요. "왜?"라는 질문에 돌아 온 답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였습니다. 모두가 비 맞는 걸 싫어해 우산을 쓰는데, 시란 씨는 기분이 좋다. 며 비 맞는 걸 즐긴다는 이유였지요. 시란 씨는 "모두와 다른 생각을 하는 적"이 되어 갇히고 고문당합니다.

모두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이상하고 위험한 일일까?

고통받고 있는 먼 나라 사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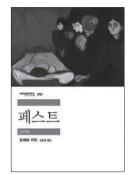
### 독서 토의 일지

학고	ŀ		학번		학년	이름		
책 저	목							
작가								
번역	가							
출판	사							
읽은	날짜							
독서	중 메모하기	<u>'</u>						
(		남동적으로, 공감 , 그 내용이 기억						
Ę	년 부분, 자·	시지 않았던 혹은 신의 의견과 달렸 , 그 내용이 기억	맛던 부분					
L	<del>사는</del> 부분	<b>들에게 전하고</b> , 그렇게 생각하						
(		<mark>ਰ관 지을 수 있</mark> 었 경험을 최대한						
2	와 연관 지O	, <b>인터넷을 통</b> 하 <b>  생각해 볼 문</b> 저  난 일들과 연결 <i> </i>	l는?					
(	진실, 사랑, 양심, 존엄,	<b>나누고 싶은 부</b> 용기, 공동체, 인류애, 생명, <sup>최</sup> 수 있는 지점 포	배려, 나 백임과 의					

독서 토의 후 생각 정리	
1. 토의 중 공감된 의견이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의견과 그 이유)	
2. 토의 중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혹은 나와 의 견이 달랐던 부분 (의견과 그 이유)	
3. 내 의견 중 공감해 준 부분과 내 생각이 바뀐 부분	
4. 토의 후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나 실천해 볼 행동	
5. 기타 (기록하고 싶은 내용)	



# 활동하기-독서토론 실제: 페스트



#### 알베르 카뮈 『페스트』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더욱 와 닿은 소설이 있다. 마치 지금의 우리 상황을 보여 주는 듯한 소설 속 내용 때문이다. 해안 도시인 오랑에 갑자기 죽은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페스트의 전조임을 의사 '리유'는 직감하게 된다. 결국 정부 는 페스트를 선포하고 도시 오랑은 봉쇄된다. 사람들은 극한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되 는데 다섯 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페스트를 대처하는 방식을 각각 보여준다. 페스트가 창궐한 오랑시의 경우와 같은 상황(코로나19)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 만약 도시 전체가 폐쇄되었다고 상상해 보자. 나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겠는가?

등장 인물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 가장 감정이입이 잘 되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인물은 누구인지 써 보자. 리유 랑베르 코타르 타루 그랑

### 독서 토의 일지

학과		학번		학년	이름	
책 제목						
작가						
번역가						
출판사						
읽은 날짜						
독서 중 메모하기	<i>'</i>					
	<b>감동적으로, 공</b> 2 , 그 내용이 기억					
던 부분, 자	되지 않았던 혹은 신의 의견과 달렸 , 그 내용이 기억	<u></u> 낫던 부분				
나는 부분	들에게 전하고 , 그렇게 생각하					
	<b>련관 지을 수 있</b> 었 , 경험을 최대한 ·					
와 연관 지0	·, 인터넷을 통하 서 <b>생각해 볼 문</b> 저  난 일들과 연결 /	는?				
〈진실, 사랑	<b>나누고 싶은 부</b> , 용기, 공동체, 인류애, 생명, <sup>칠</sup>	배려, 나				

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 포착하기〉

독서 토의 후 생각 정리	
1. 토의 중 공감된 의견이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의견과 그 이유)	
2. 토의 중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혹은 나와 의 견이 달랐던 부분 (의견과 그 이유)	
3. 내 의견 중 공감해 준 부분과 내 생각이 바뀐 부분	
4. 토의 후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나 실천해 볼 행동	
5. 기타 (기록하고 싶은 내용)	



■ 각 전공 작성해	'과 연계되는 책 보자.	을 선정하여	i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해	보고 독서	† 토론일지를

#### 참고문헌

- 김명우 외(2013), 사고와 표현, 역락,
- •모기룡(2015), 왜 일류의 기업들은 인문학에 주목하는가, 다산북스.
- 박이문(2009), 통합의 인문학, 지와 사랑.
- 앤 톰슨 지음, 최원배 옮김(2007), 실용적 입문 비판적 사고, 서광사.
- 강수진 외(2016), 학술적 글쓰기 입문, 인문과 교양.
- 정희모 · 이재성(2006), 글쓰기의 전략, 들녘.
- 앤서니 웨스턴/이보경 옮김(2004), 논증의 기술, 필맥.
- •숙명여자대학교 의사소통 개발 센터(2010). 세상을 바꾸는 발표와 토론. 경문사
- 신광재 외(2011), 토론을 알면 수업이 바뀐다. 창비.
- 이정옥(2008), 토론의 전략, 문학과 지성사.
- 최형용 외(2009), 열린 세상을 향한 발표와 토론, 박이정.
- 켄빈 리(2011), Debate, 한겨레에듀.
- 한상철(2006), 비판적 사고를 활용한 토론 분석과 응용, 커뮤니케이션북스.